

정답과 해설

국어영역 | 문학

정답과 해설



책 속의 가접 별책 (특허 제 0557442호)

- '정답과 해설'은 본책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유통 과정에서 분리될 수 있으나 파본이 아닌 정상제품입니다.
- 표지에 사용된 코팅액에는 향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상교육

실전 01 세한도 / 저문 강에 삽을 씻고

본문 12~13쪽

1 ⑤ 2 ③ 3 ⑤

지문 확인 문제 1 청술 2 강(물), 달 3 삽

가 고재중, 「세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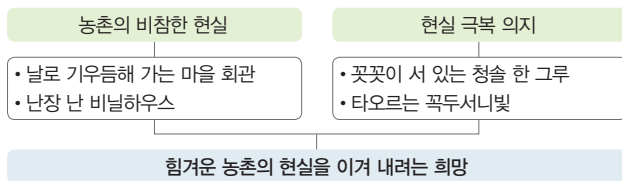
[감상] 이 시는 피폐해진 농촌 현실과 그 안에 존재하는 희망에 관한 인식을 노래한 작품이다. 외부의 시련으로 인하여 궁핍해진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는 소재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을 상징하는 소재를 대비하여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힘겨운 농촌의 현실에서도 그 안에 존재하는 희망

[구성]

1연	기울어 가는 마을 회관 옆에 꽃꽂이 서 있는 청술
2연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마을 회관과 아픔을 지니고 있는 청술
3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련을 건디는 청술
4연	퇴락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이들의 의지
5연	시련으로 인한 서러움을 어루만지는 청술
6연	가혹한 상황에서 발견하는 희망

[핵심 한눈에 보기]



나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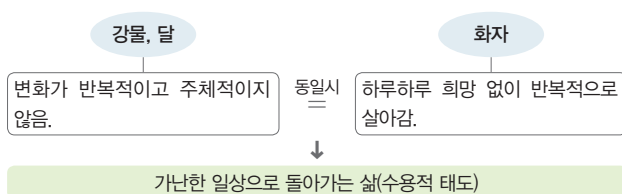
[감상] 이 시는 소외된 민중이 느끼는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정제된 어조로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고된 일을 마치고 자신의 삶과도 같은 강물에 노동의 도구인 삽을 씻으며 가슴속에 쌓인 슬픔을 퍼다 버리고자 한다. 화자는 고된 노동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강물에 비친 달을 바라본다. 그리고 고단하고 가난한 삶이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돌아가며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제] 노동하는 민중이 느끼는 가난한 삶의 비애

[구성]

1~4행	하루의 노동을 마친 뒤 강물에 삽을 씻음.
5~8행	무력감을 느끼며 담배를 피움.
9~12행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썩은 물에 비친 달을 봄.
13~16행	가난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수용함.

[핵심 한눈에 보기]



1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 기법은 의인법이다. (가)의 ‘청술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에서는 농촌에 닥친 시련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서러움에 공감하는 ‘청술’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인법을 활용해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시는 (나)가 아니라 (가)이다.

[오답 풀이]

- (가)에서는 ‘생산과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이 된 절망적인 농촌의 상황을 제시한 뒤 접속어 ‘그러나’를 사용하여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상을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시상을 전환시키는 접속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가)에서는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활기가 넘쳤던 과거 농촌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부분이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 드러나지 않는다.
- (가)에서는 ‘~ 보아라’와 같은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명령형 문장이 사용되지 않았다.
- (나)에서는 ‘우리가 저와 같아서’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화자와 같은 민중의 삶이 지닌 고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가)에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은 ‘날로 기우뚱해 가는’, ‘난장 난 비닐하우스’ 등으로 상징되는 쇠락한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청술’을 보면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은 덧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무력감을 느낄 뿐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과 ㉡ 모두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과 ㉡ 모두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원망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과 ㉡ 모두 고단한 삶에서 오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지 않다. ㉠은 궁핍하게 변해 버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으며, ㉡은 고단한 삶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자신의 삶을 묵묵히 수용하고 있다.
- ㉠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은 반복되는 암담한 일상도 자신이 밭 딛고 살아야 할 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나)에서 ‘달’은 ‘젓강 바닥 썩은 물’에 오늘도 떠서 비춘다. 이는 강물이 흘러가고 달이 반복하여 뜨는 것처럼 암담한 현실 속에서 희망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반복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달’이 화자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마을 회관’은 ‘날로 기우뚱해 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점차 쇠락해 가는 농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청술은 시련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공감하고 이를 위로하며, 마을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존재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
- ‘삽’은 화자의 생계 수단으로 화자가 힘겨운 육체노동을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 (나)의 화자는 힘겨운 현실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현실 극복의 의지 없이 방관하는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본문 14~15쪽

1 ⑤ 2 ④ 3 ②

지문 확인 문제 1 임진왜란 2 현원씨, 진시황, 서불 3 전투, 풍류

박인로, 「선상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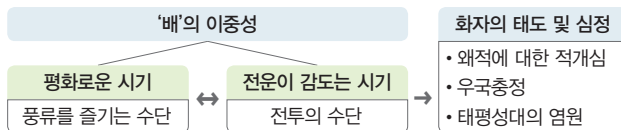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임진왜란 후인 선조 38년, 통주사로 임명받은 작가가 부산진에 내려와 느낀 바를 읊은 전쟁 가사이다. 화자가 타고 있는 배를 중심 소재로 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왜적에 대한 적개심, 우국충정의 의지, 무인으로서의 기개, 태평성대에 대한 간절한 희망 등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전쟁의 비애를 딛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은 마음

[구성]

서사	통주사가 되어 진동영으로 내려와 적진을 살핌.
본사 1	배를 처음 만든 현원씨를 원망함.
본사 2	왜적을 생기게 한 진시황과 서불을 원망함.
본사 3	자연을 즐기는 수단으로서의 배의 가치를 생각함.
본사 4	과거와 달리 지금은 배가 전쟁의 수단으로 쓰임.
본사 5	임진왜란의 치욕을 뒤로 하고 우국 단심을 다짐함.
본사 6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결의와 의지를 토로함.
결사	태평성대가 오기를 염원함.

[핵심 한눈에 보기]



[현대어 풀이] 늙고 병든 몸을 수군으로 보내시므로, 을사년(선조 38년) 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국경의 요새 지대에서 병이 깊다고 앉아 있겠는가? 한 자루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兵船)에 감히 올라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뜨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을 따르는 누런 구름은 멀고 가까운 곳에 쌓여 있고 아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같은 빛이로구나.

배 위에 이리저리 거닐며 옛날과 오늘날을 생각하며, 어리석고 미친 듯한 생각에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현원씨를 원망하노라. 큰 바다가 넓고 아득하여 천지에 둘러 있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면 풍파가 많은 만 리 밖에서 어느 오랑캐들이 엿볼 것인가?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는가? 오랜 세월이 끝없는 큰 폐단이 되어, 온 천하에 만백성의 원한을 조장하는구나.

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가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왜족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저절로 나오겠는가? 누구 말을 곧이듣고 총각과 처녀를 그토록 데려다가 바다의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을 만들어 두어 원통하고 분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까지 다 미치게 하였는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약을 얼마나 얻어 내어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단가? 남들처럼 죽어 갔으니 유익한 줄 모르겠도다. 아! 생각하니 서불의 무리가 매우 심하다. 신하가 되어서 망명을 하는 것인가. 신선을 못 보았거든 쉬 돌아왔더라면, 수군인 나의 시름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두어라, 지나간 일을 탓하지 않는 것인데 탓해서 무얼하겠는가. 속절없는 시비는 팽개쳐 던져 두자. 깊이 생각하여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이다.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니다. 장한이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난들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한들 무슨 흥이 절로 나겠으며, 높은 벼슬자리와도 바꾸지 않을 경치 좋은 자연에 개구리밥 같이 떠다니는 어부 생활이 한 조각 작은 배가 아니면 무엇이 의탁하여 다니겠는가?

이런 일을 보면 배를 만든 제도가 매우 묘한 듯하지만, 어찌하여 우리 무리들은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풍월을 읊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옛날 배에는 술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더니 오늘날 배에는 큰 칼과 긴 창 뿐이로다. 같은 배이건만 가진 바가 다르니 그 사이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다. (중략)

꿈틀거리는 벌레 같은 저 섬나라 오랑캐들아, 빨리 항복하여라.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으니, 너희들을 구태여 다 죽이겠는가? 우리 임금의 성덕이 너희와 함께 살기를 바라신다. 태평천하에 요순시대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해와 달 같은 임금의 성덕이 매일 아침마다 밝게 비치니 전쟁하는 배를 타던 우리 몸도 고깃배에서 저녁 늦도록 노래하고 가을 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성군 이하의 태평성대를 다시 볼까 하노라.

1 이 글에서 화자가 왜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적군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첫 번째 단락에서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본 화자는 바람을 따르는 황운이 멀고 가까운 곳에 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황운', 즉 누런 구름은 전쟁의 기운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마지막 단락에서 화자는 오랑캐들에게 빨리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임금의 성스러운 덕이 그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였다. 이는 적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며 공존을 제안한 것이다.
- ③ 첫 번째 단락에서 화자는 통주사로 임명된 자신을 '늙고 병든 몸'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마지막 단락에서 화자는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으니, 너희들을 구태여 다 죽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는 적군보다 힘이 우위에 있다고 확인하는 화자가 무인으로서의 기개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우리 임금의 성스러운 덕이 너희들과 함께 살고자 하신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우리 쪽의 너그러움을 강조하면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왜적들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에서 비롯된 민족적 차원의 절망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은 화자가 있는 부산진이 국경의 요새이어서 병이 깊다고 해도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므로, 통주사로서의 임무를 다하려는 화자의 우국충정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② ㉠에서 화자는 전운이 감도는 이 상황이 진시황의 탓임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려고 많은 동남동녀들을 배에 태워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후예가 오늘날의 왜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을 침범한 왜적에 대한 분노를 진시황에 대한 원망의 형식으로 표출한 것이다.
- ③ ㉠의 '준피 도미'란 '꾸물거리는 벌레 같은 섬나라 오랑캐'를 의미한다. 화자는 왜적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왜적들을 하찮은 존재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은 동일한 대상인 '배'를 '전선'과 '어주'로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전쟁을 하기 위한 배에 타 있지만 훗날 평화로운 때가 오면 고깃배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배의 상반된 용도를 매개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상탄의 전쟁 문학적 성격

이 작품은 작가가 통주사가 되어 부산에 내려갔을 때 쓴 가사이다. 당시 적군의 전진 기지인 쓰시마 섬(대마도)을 굽어보면서 전쟁의 비애를 느끼고 적을 물리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도 또한 평화 공존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애국심과 적에게 맞서는 투지, 당당한 기백 등을 드러내면서 우리 민족의 실력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적을 물리치겠다는 적개심에만 머무르지 않고 평화 공존의 정서를 피력하여 전쟁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잘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 [B]에서는 ‘배반이 낭자’하던 ‘석일 주중’과 ‘대검장창’뿐인 ‘금일 주중’을 대비하였다. 술상이 어지럽게 널려 있던 과거의 배와 큰 칼과 긴 창만 있는 현재의 배를 통해 배 안에서 풍류를 즐길 수 있던 과거와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현재를 대비함으로써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A]에서는 이처럼 대상의 쓰임을 대비하여 화자의 상황을 부각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A]와 [B] 모두 미래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 전망이 드러난 부분이 아니다.
 ③ [B]의 ‘임풍 영월(臨風詠月)호디 흥(興)이 전허 업는게오.’에서 화자는 전쟁 때문에 흥취가 없어진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④ [A]와 [B] 모두에서 화자가 지닌 정서는 대상의 부재로 말미암은 애상적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⑤ [A]와 [B] 모두 부정적인 현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실전 01 플라타너스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본문 18~19쪽

1 ③ 2 ④ 3 ⑤

지문 확인 문제 1 동반자 2 나는 너와 함께 신(神)이 아니다! 3 자유
4 뿌리, 꽃, 잎, 비, 폭설, 담

가 김현승, 「플라타너스」

[감상] 이 작품은 ‘플라타너스’라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꿈과 덕성을 지닌 존재로 예찬하고, 그러한 자세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여기서 플라타너스는 화자와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등장한다. 플라타너스라는 가로수는 ‘너’로 의인화되고 생에 대한 고독과 우수, 꿈을 간직한 존재로 그려져 화자는 이 존재와 영혼을 불어넣을 영적인 공감을 하고자 하지만 신이 아닌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닌 한계만을 절감한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간결한 시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시상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사물의 본질을 깊이 탐색하는 작가의 경향이 잘 드러나는 시이다.

[주제] 고독한 삶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구성]

1연	꿈을 가진 플라타너스
2연	넉넉한 사랑을 주는 플라타너스
3연	‘나’의 외로움을 달래 준 플라타너스
4연	플라타너스에게 영혼을 불어넣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5연	플라타너스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은 ‘나’의 소망

[핵심 한눈에 보기]

‘나’	플라타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달프고 고독한 존재 • 근원적 한계를 지닌 존재 • 플라타너스의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가진 존재 • 넉넉한 사랑을 지닌 존재 • 화자의 고독을 위로해 준 존재
↓	
플라타너스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함.	

나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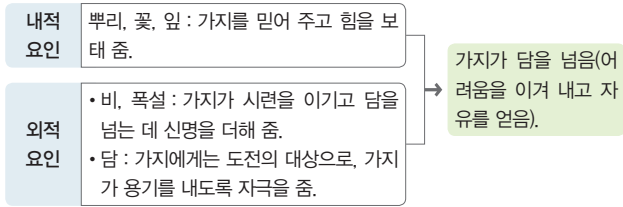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수양 버드나무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어서는 모습에 주목하고 그 과정을 추측하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시이다. 수양 버드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는 데에는 뿌리, 꽃, 잎과 같은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 폭설, 아울러 목표를 가로막는 담이라는 외적 요인까지도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내적 요인들의 신뢰와 협력, 외적인 시련과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신명, 담이라는 도전의 대상이 주는 자극이 존재를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주제] 자유를 얻기 위한 도전의 과정에 필요한 용기와 협력

[구성]

1연	수양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내적 원동력
2연	수양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외적 원동력
3연	수양처럼 담을 넘는 다른 식물들
4연	수양 가지에게 담이 지닌 의미

[핵심 한눈에 보기]



1 (가)는 플라타너스를 의인화하여 꿈과 덕성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였고, (나)는 수양 가지를 의인화하여 의지를 갖고 역경을 이겨 내는 존재로 형상화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반어법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두 작품 모두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반어법을 활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② 두 작품 모두 슬픔을 드러내는 애상적 어조를 띤 시가 아니다.
- ④ (가)에서는 하강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나)에서는 '비'나 '폭설', '수양의 늘어진 가지' 등이 하강 이미지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비극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두 작품 모두 대체로 '—다'로 시구를 끝맺어 평서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명령문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 화자는 플라타너스의 뿌리 깊이 영혼을 붙여넣고 싶지만 자신이 신(神)이 아니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소중한 동반자인 플라타너스에게 인간의 영혼을 부여하여 교감하고 싶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식하며 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㉞은 플라타너스와 함께하는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느끼는 존재론적 한계에 대해 토로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화자가 플라타너스에게 꿈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플라타너스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고 하였다. '파이란 하늘'은 꿈과 이상을 상징하는 시어로, ㉠은 플라타너스가 꿈과 이상을 지닌 존재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플라타너스는 사모할 줄 모르지만(사람처럼 사랑을 표현할 줄은 모르지만) 자신이 가진 가지나 잎사귀 같은 것들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다른 존재들을 쉬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은 사랑을 베푸는 플라타너스의 헌신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화자가 먼 길에 오르거나 홀로 되어서 외로울 때 플라타너스가 화자와 함께 길을 걸어 주었다고 하였으므로, ㉢은 플라타너스가 화자의 고독감을 달래 주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화자는 수고로운 길이 다하는 날, 즉 죽는 날까지 플라타너스를 지켜 이웃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은 화자가 플라타너스를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목련 가지'나 '담쟁이 줄기'는 수양 가지의 성장에 원동력이 되는 또 다른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양 가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뜻하는 것이다. 즉 담을 넘는 일이 비단 수양 가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련 가지', '감나무 가

지', '줄장미 줄기', '담쟁이 줄기'처럼 담을 넘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의 경우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내적인 협력, 외적인 시련 극복, 장애에 대한 도전 등을 통해 성장하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존재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진리임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뿌리'와 '꽃과 잎'은 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도와준 내적인 요소들이다. 1연에 이들이 수양 가지가 한없이 멀지 않도록 혼연일체 믿어 주었다고 하였다.
- ② 2연에서는 한 댓새 고집스럽게 내린 '비'와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 일을 신명 나는 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와 '폭설'은 수양 가지라는 여러 존재에게 가해진 외적인 시련이자, 성장의 원동력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④ 수양 가지는 '금단의 담'이 가둬 둔 '담 밖'을 향해 도전을 감행하고 마침내 성공을 거둔다. 따라서 '담 밖'은 존재의 지향점인 미지의 세계를, '금단의 담'은 그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전 02 전가팔곡

본문 20~21쪽

1 ⑤ 2 ④ 3 ④

지문 확인 문제 1 농촌 2 보리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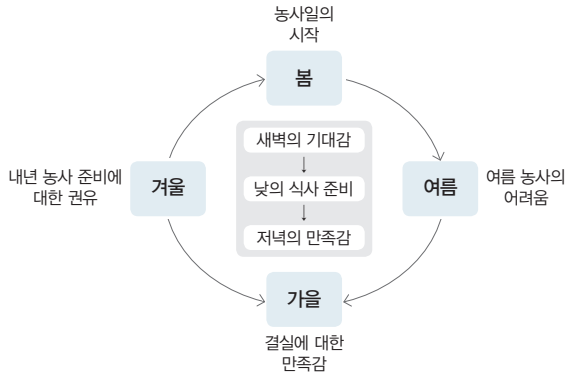
이휘일, 「전가팔곡」

[감상] 이 작품은 벼슬길을 떠나 농촌에서 생활했던 조선 중기의 유학자 이휘일이 지은 여덟 수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에는 농촌의 일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 농민에 대한 애정, 농촌에서 살아가는 만족감, 사대부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등이 담겨 있다. 따라서 농민의 삶을 공유하면서도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대부의 소임을 외면하지 않는 작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서사의 역할을 하는 <제1수>를 제외하면, <제2수>부터 <제8수>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보인다. <제2수>부터 <제5수>까지는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농사일이다. <제6수>부터 <제8수>까지는 각각 새벽, 낮, 저녁의 농민의 일상이 다루어지고 있다.

[주제] 농부의 부지런한 삶과 전원생활의 만족감

[구성]

제1수	시골에 묻혀 살며 풍년을 기원함.
제2수	봄을 맞아 서로 도우며 농사일을 시작함.
제3수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며 농사일을 함.
제4수	가을에 추수하고 만족감을 느낌.
제5수	겨울에도 쉬지 않고 내년 농사를 준비함.
제6수	새벽에 밭에 나가며 기대감을 가짐.
제7수	낮에 고생하는 농민들과 소박한 음식을 나눔.
제8수	저녁에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며 즐거움을 느낌.



1 이 시조에는 농사일에 대한 관심과 농촌의 모습, 사대부로서의 면모 등이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드러나 있지만, 의성어나 의태어 등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농촌의 모습을 묘사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제2수>의 '앞집의 쟁기 잡고 뒷집의 따비 내네.'와 <제5수>의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에서 대구법을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제4수>의 '이 밖에 천사만종(千駟萬鍾)을 부러 무엇하리오.'와 <제8수>의 '이 중의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오.'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제5수>의 '초가집 잡아 매고 농기(農器) 좀 손 보아라.'와 <제7수>의 '배끓는 농부들을 진시(鎭時)에 먹여라.' 등에서 명령형 종결 표현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 ④ <제2수>의 '농인(農人)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와 <제8수>의 '호미를 돌려 메고 달 지고 가자꾸나.'에서 청유형 여조를 활용해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 어 내고 있다.

2 <제1수>에서는 '이 중의 우국성심(憂國誠心)은 풍년을 원하노라.'를 통해 초야에 묻혀 살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대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제8수>에서 '즐거운 뜻'은 농사일의 즐거움을 드러낸 것으로 학문하는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제2수>의 '두어라 내 집부터 하라 남하니 더욱 좋다.'에서는 상부상조하며 농사일을 하는 농촌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다.
- ② <제3수>에서 화자가 곡식 알갱이마다 맺힌 농부들의 수고로움을 누가 알아 줄 것이냐고 말한 것은 농사일로 고생하는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제7수>에서는 '배끓는 농부들과 음식을 나누는 화자의 모습에서 농민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 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제4수>에서는 힘들여 지은 농사의 결실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제8수>에서는 하루 동안의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에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2수>의 '봄', <제3수>의 '여름', <제4수>의 '가을' 등에서 계절의 순차적 흐름대로 시상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6수>의 '새벽빛', <제8수>의 '해 지고'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무렵까지의 하루의 일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됨을 알 수 있다.

3 '백설(百舌)'은 새벽이 되자 지저귀는 새이다. <제6수>에서 화자는 새벽이 되자 밤새 농작물이 얼마나 자랐을까 궁금해하면서 아이들에게 밭을 보러 가자고 한다. 따라서 '백설(百舌)'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면서 화자의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화자가 밭을 보러 가자며 아이들을 재촉하게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쟁기'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할 때 쓰는 농기구이므로, 농촌에 있는 화자의 처지를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② '불'은 여름날 무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농사일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비유한 말이다.
- ③ '천사만종(千駟萬鍾)'은 여러 말이 끄는 수레와 많은 봉록이라는 뜻으로, 부귀영화를 의미한다. 화자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거리를 두고 농촌에서 소박하고 근면한 삶의 가치를 예찬하며 추구하고 있다.
- ⑤ '청야주 국'은 '보리밥'과 함께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이다. 소박한 음식을 농부들과 나누어 먹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농민에 대한 애정과 소박하고 정겨운 농촌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지식 더하기

「전가팔곡」의 창작 동기

이취일의 「서전가팔곡후(書田家八曲後)」에 “나는 농사짓는 사람은 아니나, 전원에 오래 있어 농사일을 익히 앞으로 본 것을 노래에 나타낸다. 비록 그 성향(聲響)의 느리고 빠름이 절주(節奏)와 격조(格調)에 다 맞지는 않지만, 이항(里巷)의 음탕하고 태만한 소리에 비하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곁에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익혀 노래하게 하고 수시로 들으며 스스로 즐기려 한다.(存齋集 권4)”라고 하여, 「전가팔곡」의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다.

실전 02

짚방석 내지 마라 ~ / 술을 취케 먹고 ~ /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본문 26~27쪽

1 ① 2 ⑤ 3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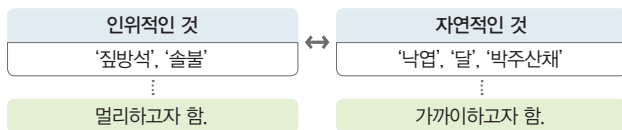
지문 확인 문제 1 박주산채 2 시름 3 창

가 한호, 「짚방석 내지 마라 ~」

[감상] 이 작품은 세속을 떠나 산골에서 느끼는 풍류 의식을 노래한 시조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대비하여 자연을 벗 삼아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그려 내었다. 화자는 세속의 일은 물론이고 짚방석이나 술불마저 인위적인 것이라고 하여 멀리하고, 낙엽이나 달 같은 자연 그대로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변변찮은 술과 나물도 마다하지 않고 즐길 대상으로 여기는 소박함도 보이고 있다. 쉬운 말과 친숙한 소재로 사상을 전개하여 안빈낙도의 정신을 형상화하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산골에서 느끼는 소박한 풍류

[핵심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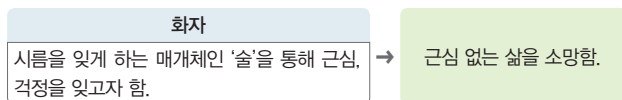


나 정태화, 「술을 취케 먹고 ~」

[감상] 이 작품은 술을 통해 시름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시조이다. 시름을 의인화하여 친근한 대상과 이별하는 듯이 표현하였으며, 술을 취하도록 먹었더니 세상만사의 온갖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다 하여 근심 없는 삶을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술을 통한 시름의 해소

[핵심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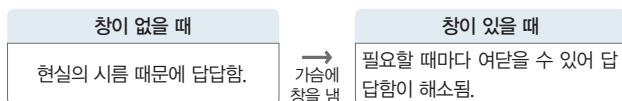


다 작자 미상,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감상] 이 작품은 화자가 짝 막힌 방에 창을 내듯 자기 가슴에도 창을 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사실시조이다. 화자는 창을 내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여 소망의 절실함을 강조하고, 일상의 친근한 사물을 다소 수다스럽게 열거함으로써 자신의 괴로움을 해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비애와 고통을 어렵게 그리지 않고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우리나라 서민 문학의 한 특징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주제]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싶은 소망

[핵심 한눈에 보기]



1 (가)는 '짚방석', '술불'처럼 인위적인 것과 '낙엽', '달', '박주산채'처럼 자연적인 것을 대비하여 산골에서 느끼는 안빈낙도의 즐거움과 소박한 풍류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나)에는 속성이 반대되는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상 세계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 ③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으며, 시적 화자의 감정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
- ④ (가)와 (다)에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비판적 태도도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나)와 (다)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느낌의 상승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가)는 초장의 '짚방석 내지 마라'와 중장의 '술불 혀지 마라'처럼 '~지 마라'의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의인화 기법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나)는 추상적 개념인 '시름'을 하직 인사 건네고 떠나가는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구체화하였다.
- ② (가)에서는 '낙엽엔들 못 앉으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소박한 풍류를 드러내고 있으나, (나)에는 이와 같은 설의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다.
- ③ (가)는 초장과 중장에서 '~지 마라'라는 명령문을, 중장에서 '~내어라'라는 명령문을 활용하여 산촌 생활에서의 안빈낙도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잔 가득 부어라'라는 명령문을 활용하여 술을 통한 시름의 해소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화자가 아이를 불러 박주산채일망정 없다고 하지 말고 내어 오라고 시키고 있고, (나)에서는 화자가 아이(아희)에게 잔에 술을 가득 부으라고 시키고 있다. 즉, (가)와 (나) 모두 중장에서 '아이'라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고, 그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3 (다)는 답답함이라는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망이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고통의 원인이 된 상황을 희화화하여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한 개인의 답답함이 토로되어 있어 사회상을 풍자하려는 의도도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다)는 중장이 장형화된 사실시조이다. 초장과 중장은 각각 4음보로 평시조와 다를 바 없는 길이지만, 중장은 장지문의 종류와 부속품을 열거하면서 평시조의 중장에 비해 훨씬 길어졌다.
- ③ (다)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던 것들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일상적 시어를 사용해 생생한 생활 감정을 사실적으로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다)는 답답함 때마다 여담을 수 있는 창을 가슴에 내고 싶다는 참신한 발상을 담고 있는데, 이는 현실의 고통을 이겨 내려는 태도가 문학적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는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라면 중장의 내용, 즉 창 종류나 구성 요소 등은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황하게 열거한 것은 〈보기〉의 설명대로 수다스러운 열거를 통해 해학성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전 01 여우난골족 / 오월

본문 30~31쪽

1 ① 2 ⑤ 3 ⑤

지문 확인 문제 1 큰집 2 보리

가 백석, 「여우난골족」

[감상] 이 작품은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인 명절날의 정겨운 풍경을 관찰자적 시선과 사실적인 묘사로 그려 내면서 농촌 공동체의 풍요로운 삶의 원형을 재현해 낸 시이다.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척들의 소개와 명절을 쇠며 서로 나누어 먹는 음식, 아이들의 놀이 문화 등 유년의 '나'가 체험하는 명절날의 풍속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풍요로움과 정겨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명절날의 정취

[구성]

1연	명절을 맞아 큰집에 가는 '나'와 '나'의 가족
2연	큰집에 모인 친척들
3연	풍성하게 차려 놓은 명절 음식
4연	명절날의 풍성하고 흥겨운 분위기

[핵심 한눈에 보기]

명절날 아침	'나'가 부모님과 함께 큰집에 감.
↓	
낮	일가친척들이 큰집(안간)에 모이고, 명절 음식을 준비함.
↓	
저녁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배나무 동산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놀.
↓	
밤	엄마들은 아랫간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윗간에서 놀이를 함.
↓	
새벽	아이들이 자리싸움을 하며 잠이 듬.
↓	
다음날 아침	시누이와 동서들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아침까지 잠.

나 김영랑, 「오월」

[감상] 이 작품은 오월의 풍경을 노래하여 봄의 생명력을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의 시선을 따라 '들길, 마을, 보리밭, 피꼬리, 산봉우리'의 모습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오월의 밝고 싱그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푸른 들'과 '붉은 들길'의 색채 대비와 '보리'를 여인네의 허리에 비유하고 산봉우리를 곱게 단장한 새색시의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비유한 것에서 회화적 이미지가 두드러져 봄의 생기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오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

[구성]

1~2행	봄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들길과 마을 골목의 정경
3~5행	봄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의 모습
6~9행	암수 피꼬리의 정다운 모습
10~11행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자태

[핵심 한눈에 보기]

화자의 시선 이동	효과
'들길' → '마을' → '보리밭' → '피꼬리' → '산봉우리'	오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드러냄.

1 (가)는 큰집에 모인 일가친척들의 특성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들길, 마을, 보리밭, 피꼬리, 산봉우리'와 같은 전원적이고 향토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오월 봄날의 풍경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가)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정경을 묘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유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와 (나) 모두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다. (나)에서는 (가)에 비해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오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 ⑤ (가)와 (나) 모두 명암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으며, 화자가 갈등을 겪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2 ㉠~㉢에서 화자의 시선은 모두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의 대상(친척들, 명절 음식, 민속놀이 등)을 향해 있다. 따라서 화자의 시선이 외부 대상에서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명절날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에서는 화자인 '나'가 명절을 맞아 엄마, 아빠와 함께 ㉢, ㉣의 공간적 배경인 큰집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③ ㉢에서는 큰집에 모인 일가친척들을 간략한 특징과 함께 나열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저녁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배나무 동산에서 밤이 어둡도록 놀다가 밤이 깊어지자 웃간 한 방에 모여 놀이를 하고, 새벽에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3 ㉠은 꽃이 피고 나무에 새순이 돋아 아름답게 변화한 산의 자태를, 곱게 단장하고 아양을 떠는 여인으로 의인화함으로써 봄의 생명력을 드러낸 표현이다. (나)에서는 봄날의 풍경을 통해 봄의 흥취와 정겨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쓸쓸한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붉은색('들길')과 푸른색('마을 골목')의 색채 대비를 통해 봄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울림소리를 반복하여 바람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의 모습을 관능적으로 의인화하여 봄날에 느끼는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암수 피꼬리가 쫓고 쫓기는 장면을 묘사하여 봄날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본문 32~33쪽

1 ⑤ 2 ⑤ 3 ③

지문 확인 문제 1 등사불 2 황화

작자 미상, 「동동」

[감상] 이 작품은 현존하는 시가 중 가장 오래된 월령체(月令體) 노래로, 임의 덕과 복을 기원하는 서사를 포함하여 전체 13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해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주로 임을 떠나보낸 여인의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시상이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각 연의 주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원래 연가(戀歌)적 성격의 민요였으나, 조선 시대에 궁중으로 흘러 들어가 궁중 연악(宴樂)으로 쓰이면서 변형된 것으로 추측된다.

[주제] 임에 대한 송도(送道)와 연모(戀慕)의 정

[구성]

서사	임의 덕과 복을 빙.
1월령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2월령	임의 훌륭한 인품 찬양
3월령	임의 아름다움 찬양
4월령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5월령	임의 만수무강 기원
6월령	임에게 버림받은 슬픔
7월령	임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
8월령	임 없이 한가위를 맞이하는 쓸쓸함
9월령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
10월령	버림받은 사랑에 대한 회한
11월령	독수공방의 외로움
12월령	임과 인연을 맺지 못한 한(恨)

[핵심 한눈에 보기]

화자: '나'	시적 대상: 임
별해 부른 빛, 저미연 부룻, 반(盤)잇 저	등(燈)사불, 돌윗곳
...	...
임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신세를 드러냄.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이자,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인물임.

[현대어 풀이] [서사] 덕이란 것은 뒤에(신령님께) 바치우고 / 복이란 것은 앞에 (임에게) 바치오니 /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 바치려 오십시오. / 아으 동동다리 // [1월령] 정월의 냇물은 / 아아 얼고 녹고 하는데 / 세상 가운데 이 몸은 / 홀로 살아가네. / 아으 동동다리 // [2월령] 이월 보름에 / 아아 (임은) 높이 켜 / 등불 같구나. / 만 사람 비추실 모습이다. / 아으 동동다리 // [3월령] 삼월 지나며 핀 / 아아 봄 산 가득 진달래꽃이여 /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 지녀 나셨네. / 아으 동동다리 // [4월령] 사월을 잊지 않고 / 아아 오시는구나 꾀꼬리 새여 / 어찌하여 녹사님은 / 옛 나를 잊고 지내시는가. / 아으 동동다리 // [5월령] 오월 오일에 / 아아 단옷날 아침 약은 / 천 년을 길이 사실 / 약이라 바치옵니다. / 아으 동동다리 // [6월령] 유월 보름에 / 아아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 돌아보실 임을 / 잠시라도 따르겠습니다. / 아으 동동다리 // [7월령] 칠월 보름에 / 아아 백중 제물 차려 놓고 / 임과 함께 살고 싶어 / 소원을 비읍니다. / 아으 동동다리 // [8월령] 팔월 보름은 / 아아 한가위날이지만 /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 오늘이 한가위로구나. / 아으 동동다리 // [9월령] 구월 구 일에 / 아아 약이라고 먹는 / 노란 국화꽃이 집 안에 피었는데 / 초가집은 적막하구나. / 아으 동동다리 // [10월령] 시월에 / 아아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구나. / 꺾어 버리신 후에 / (나무를) 지

나실 한 분이 없으시다. / 아으 동동다리 // [11월령] 십일월 땅바닥에 / 아아 얇은 속적삼 덮고 누워 / 슬픈 일이로구나. / 고운 임을 (두고) 각각 지내며 살아가는구나. / 아으 동동다리 // [12월령] 십이월 분디나무로 깎은 / 아아 차려 올리는 소반 위의 젓가락 같구나. / 임 앞에 들어서 가지런히 놓으니 / 손님이 가져다 (임에) 옵니다. / 아으 동동다리

1 이 글은 화자의 정서가 각 연마다 다르게 나타나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는 임에 대한 송도와 연정을 그리고 있으나 임에 대한 원망과 예찬, 회한과 고독, 기원과 염원, 한스러움 등이 다양하게 드러나 있다. 화자의 다양한 정서를 중심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별해 부른 빛(6월령)', '저미연 부룻(10월령)', '반(盤)잇 저(12월령)'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일 년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 차례대로 노래하는 월령체 형식을 취하며, 세시 풍속에 따라 임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 ③ 각 연의 끝에 '아으 동동(動動)다리'라는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후렴구를 반복하는 것은 고려 가요의 특징이다.
- ④ 시가의 중간에 '아으'라는 감탄사를 넣거나 '다호라', '-삿다'와 같은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2 이 글은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래하고 있으며, <보기>는 자연물(꾀꼬리)의 모습을 제시한 후에 짝을 잃은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즉 <보기>는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화자의 시선 이동이 각 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며, <보기>에서는 오히려 외부에서 내면으로 바뀌고 있다.
-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이미지와 관련한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글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지 않으며, <보기>는 시의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하지 않다.

보기 | 작품 분석

유리양, 「황조가」

[감상] 이 작품은 작가와 창작 시기가 뚜렷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이다. 암수 꾀꼬리의 정겨운 모습을 제시한 후, 이와 대조하여 임을 잃은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3 1월령의 '나릿 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냇물'을 의미하며, 이는 임의 부재로 얼어붙은 화자의 외로운 마음과 대조된다. 이 글에서 임의 훌륭한 인품을 비유한 대상은 2월령의 '(노피 현) 등(燈)사불'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6월령의 '별해 부른 빛'과 10월령의 '저미연 부룻'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가련한 신세를 빗대어 표현한 시어이다.
- ④ 3월령의 '돌윗곳'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시어이다.
- ⑤ 7월령에는 여러 가지 제물을 차려 놓고 임과 함께 살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비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실전 01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선운사에서

본문 36~37쪽

1 ② 2 ② 3 ③

지문 확인 문제 1 라디오 2 전파 3 이별

가 장정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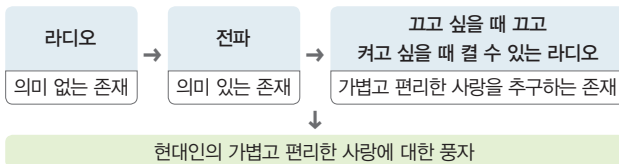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김춘수의 시 「꽃」을 패러디하여 현대인들의 가볍고 소비적인 사랑을 비판하고 있다. 라디오를 쉽게 끄고 켜는 행동처럼, 가벼운 인간관계가 넘쳐 나는 현대 사회를 풍자하여 반성의 계기를 주고 있다.

[주제]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비판

[구성]

1연	단추를 누르기 전의 의미 없는 존재인 라디오
2연	단추를 누르자 전파가 된 라디오
3연	누군가의 전파가 되고 싶은 '나'의 소망
4연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의 소망

[핵심 한눈에 보기]



나 최영미, 「선운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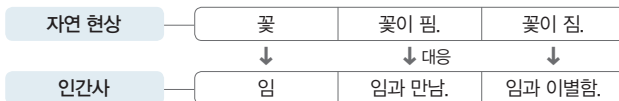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에 대응시켜 표현한 시이다. 자연 현상에서 인간사를 유추하여 인생의 보편적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꽃에서 깨닫게 되는 만남과 이별의 진리

[구성]

1연	낙화의 순간성과 허무함 인식
2연	이별의 슬픔과 고통
3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4연	이별한 사람을 잊는 것의 어려움

[핵심 한눈에 보기]



1 (가)에서는 라디오의 단추를 누르면 전파가 발생하는 속성을 활용하여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에서도 꽃이 금방 지는 것처럼 헤어진 사람을 잊는 것도 '순간이면 좋겠네'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단정적 어조란 망설임 없이 엄격하게 딱 잘라서 결정하는 듯한 어조를 말한다. (가)는 패러디를 통한 냉소적 어조가, (나)는 애상적 어조가 나타나므로 단정적 어조를 사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는 '잠깐, 순간'과 '한참'이라는 시간 표현을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이러한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시의 처음과 끝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구로 구성하는 수미상관의 구성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2 <보기>는 '꽃'을 제재로 하여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는 <보기>의 형식적인 면과 기본 골격을 차용하였지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인간관계를 풍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와 다른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지, <보기>의 주제 의식을 풍자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보기>를 패러디한 작품이라고 하였으므로, (가)가 <보기>와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다.

③ (가)와 <보기>는 운율과 통사 구조 등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가)는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사랑을 풍자하고 있고, <보기>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 요소인 주제 의식이 다르다.

④ (가)와 <보기>는 모두 '나'의 행위에 따라 '그'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기본 골격이 동일하다.

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라디오'의 단추를 누르는 것은 모두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 보기 | 작품 분석

김춘수, 「꽃」

[감상] 이 작품은 '꽃'을 제재로 하여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 시이다. 이러한 화자의 소망은 '나'에서 '우리들'로 확대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삶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3 '멀리서 웃는 그대'는 화자와 '그대'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내 이별의 상황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웃는 그대'는 화자의 눈에 아른거리는 임의 모습일 뿐, 화자와 '그대' 사이의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더군'은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하며, 그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잠깐이더군'은 꽃이 지는 장면을 보고 화자가 깨달았던 낙화의 순간성과 허무함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와 임의 사랑의 시작을 꽃이 피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 현상을 인간사인 화자의 상황에 견주어 사용하였다.

④ 임과의 만남을 꽃이 피는 것에 대응시키고, 임과의 이별을 꽃이 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꽃'은 자연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임인 '그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⑤ '영영 한참'은 이별 후에 사랑하는 '그대'를 쉽게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실전 02 오백 년 도움지를 ~ / 절명시

본문 38~39쪽

1 ④ 2 ⑤ 3 ④

지문 확인 문제 1 꿈 2 가물거리는 촛불 3 지식인

가 길재, 「오백 년 도움지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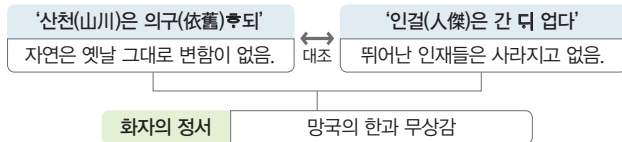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고려 왕조가 몰락하자 모친 봉양을 핑계로 고향 선산에 은거하던 작가가 고려의 도움지였던 개성을 돌아보며 느끼는 감회를 노래한 시조이다.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망국의 한과 인생의 무상감

[구성]

초장	필마로 찾아온 고려의 도움지
중장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
종장	옛 왕조에 대한 향수와 무상감

[핵심 한눈에 보기]



나 황현, 「절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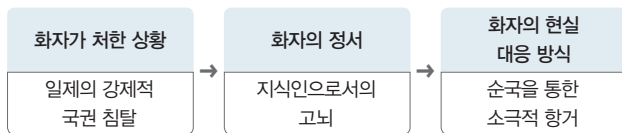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1910년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소식을 듣고 비탄에 빠진 작가가 자신의 심경과 함께 민족이 직면한 현실 앞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표현한 한시이다.

[주제] 국권 상실에 따른 지식인의 비탄과 고뇌

[구성]

제1수	순국에 대한 결심
제2수	망국의 슬픔
제3수	망국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
제4수	충성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한탄

[핵심 한눈에 보기]



1 (가)의 중장에서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하여 변함없는 자연과 달리 인결이 사라진 현실에 대한 화자의 무상감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나)에서는 자연물과 인간을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물에 화자의 심정을 의탁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설의적 표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으로, (가)와 (나)에는 모두 이러한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희망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허무감과 안타까움이, (나)에서는 절망감이 드러나 있다.
③ (나)에서는 '새나 짐승도 슬피 울고'와 같이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만, (가)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쓰이지 않았다.
⑤ (나)에서는 <제3수>에 '무궁화 세계'가 우리나라를 의미하여 대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에 의한 사상의 전환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2 (가)에서 '필마'는 한 필의 말을 가리키는데, 화자의 외로운 신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벼슬을 하지 않은 화자의 신분을 드러낸다. (나)에서 '목적'은 '목동의 피리 소리'로 세월의 무상감을 표상하는 시어이다. 즉, 오백 년 고려의 왕업이 이제는 목동이 부는 구슬픈 피리 소리에나 담겨 있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두 시조 모두 망해 버린 고려의 옛 도움지에서 느끼는 한과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② 고려는 918년에 왕건이 세우고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하여 망하면서 약 오백 년 기간의 역사를 지닌 나라였다. 따라서 두 시조에서 '오백 년'은 모두 고려 왕조를 가리키는 시어로 쓰였다.
③ (가)의 '꿈'은 화자의 무상감을 비유하여 나타낸 시어이다. 또한 <보기>의 '눈물'은 영화로웠던 옛 고려 왕조가 망한 것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허무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서 '인결'이 사라진 모습은 고려 왕조가 망한 현재를 의미하며, <보기>의 '추초'만 가득한 모습은 고려가 망한 현재 만월대의 모습을 의미한다.

나 보기 | 작품 분석

원천석, 「흥망(興亡)이 유수하니 ~」

[감상] 이 작품은 풀만 무성하게 자란 고려의 옛 궁궐터를 돌아보며 무상감을 노래한 시조이다. 화자가 자신을 '객'으로 표현하여 주관적인 정서를 객관화하고 있다.

[주제] 망국의 슬픔과 무상감

지식 더하기

고려 말 조선 초의 시대적 상황

고려 말부터 조선 초는 왕조가 교체되는 정치적 격변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유교적 가치관과 현실 상황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어야 했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가치관에 충신했던 길재나 원천석과 같은 유학자들은 조선을 개국한 세력들의 탄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키면서 고려의 역사를 회고하며 멸망을 한탄하는 작품을 남겼다.

3 ㉠에서 화자는 국난의 비극적 상황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도리에 대해 고민하였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과 같은 지식인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난리'는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것을 의미하므로, 화자의 현실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려 준다.
② 임금이 있는 '구중궁궐'을 '침침해저'로 표현한 것은 조국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새나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와 산이 찢그리는데'는 '새, 짐승, 바다, 산'에 감정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다.
⑤ 화자는 '진동'처럼 '충성'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윤곡'처럼 '인'을 이루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실전 01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본문 42~44쪽

1 ② 2 ③ 3 ④ 4 ③

지문 확인 문제 1 연탄장수 2 도시 빈민층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감상] 이 작품은 1986년에 발표된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연작 중 한 편으로 도시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작가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임 씨의 만남을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로 왜소해지고 초라해진 도시 빈민층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연민의 시선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고단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과 소시민적 근성에 대한 비판

[구성]

발단	부천 원미동에 연립을 사서 이사 온 ‘그’의 가족은 연립에 자주 생기는 하자 탓에 수월찮게 돈을 날림.
전개	‘그’는 욕실 파이프가 터지자 지물포 주 씨에게 소개 받은 임 씨와 젊은 일꾼 한 명에게 수리를 맡기지만, ‘그’와 아내는 임 씨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취함.
위기	의외로 욕실 공사가 간단해지자 아내는 처음의 견적서대로 돈을 주는 것이 아까워 임 씨에게 욕상 공사까지 맡김.
절정	욕실 공사에 이어 욕상 공사까지 성실하게 완수한 임 씨는 견적서를 수정하여 아주 적은 비용을 받고, 이러한 임 씨의 모습에 ‘그’와 아내는 부끄러움을 느낌.
결말	일을 마치고 임 씨와 술을 마시던 ‘그’는 임 씨가 비 오는 날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임 씨에 대해 연민을 느낌.

[핵심 한눈에 보기]

공사를 하는 동안	비용을 새로 계산한 후
‘그’와 아내는 임 씨에게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하며, 의외로 공사가 간단하게 끝나자 아내는 견적서대로 돈을 주기를 아까워함.	→ ‘그’와 아내는 양심적으로 공사비를 청구한 임 씨의 모습을 보고 공사비를 깎아 보려 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낌.

1 이 글은 ‘그’의 집에 공사를 하러 온 임 씨에게 서술의 초점을 맞추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임 씨의 상황을 ‘그’의 시각에서 전달하고 있다. 즉, 한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특정 인물의 처지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부천 원미동을 배경으로 하여 도시 빈민층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배경에 대한 묘사는 드러나지 않으며, 배경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 ③ 이 글에서는 ‘그’의 집에서 임 씨가 공사를 하는 내용이 주요 장면으로 제시될 뿐, 빈번한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임 씨가 ‘그’와 아내에게 서비스로 욕상을 수리해 준 것은 임 씨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배풀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일 뿐, 임 씨가 소시민적인 삶을 반성하고 각성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그’와 아내는 도시 변두리에 집을 마련한 서민이다. 임 씨는 도시 변두리에서 연탄 배달을 하거나 잡다한 집수리를 하며 살아가는 서민이다. 따라서 이들은 서민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며 자신이 일한 것에 맞추어 새로 견적을 내는 임 씨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인물이다. 작가는 작은 이익에도 민감한 속물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소시민인 ‘그’와 아내와 달리, 궁핍한 생활에도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임 씨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④ 임 씨가 ‘경기도 이천 농군이 도시 사람 돼 보겠다고 땅 팔아 갖고 나와서’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글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농민들이 도시로 밀려들던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임 씨의 반지르르한 말솜씨마저 다 검은 속셈을 감추기 위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공사비가 더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의 아내의 모습은 사소한 이익에도 민감한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 준다.

지식 더하기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11개의 단편이 모인 연작 소설로, 1980년대 원미동을 배경으로 평범한 도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가난한 동네에서 이웃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이해와 공존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3 ㉠은 공사를 마친 후 임 씨가 다시 비용을 계산하자 조금이라도 공사 비용을 아끼고 싶어 하는 자신의 소시민적 근성에 스스로 역겨움을 느끼는 ‘그’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에는 겨울에 자기 집의 연탄을 때라는 임 씨의 권유에 난감해서 선택 대답하지 못하는 ‘그’의 태도가 나타난다.
- ② ㉡에는 임 씨와 함께 온 젊은 인부의 행동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임 씨 일행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③ ㉢은 ‘이십만 원이 다 되는 돈’에 해당하는 공사 견적 비용으로 파이프만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 임 씨를 의심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 ⑤ ㉤에는 지금까지 공사 비용 때문에 임 씨를 의심하고 혈통었지만 자신의 예상보다 적은 공사비를 제시하는 임 씨에게 미안하여 제 값을 치르고자 남편이 나서기를 바라는 아내의 모습이 나타난다.

4 ㉠은 ‘그’가 임 씨의 ‘서비스’라는 말에 놀라고 겸연쩍어 할 말이 없어 하는 것을 보여 주므로, ‘입은 있으나 할말이 없다’는 의미인 ‘유구무언(有口無言)’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언어도단(言語道斷)은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어이가 없어서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일구이언(一口二言)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언중유골(言中有骨)은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중구난방(衆口難防)은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운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이다.

실전 02 하생기우전

본문 45~47쪽

1 ② 2 ② 3 ① 4 ②

지문 확인 문제 1 금척 2 전기적

신광한, 「하생기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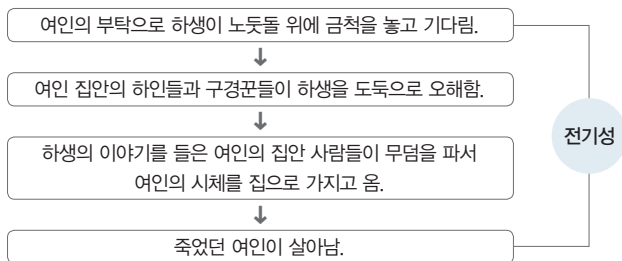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조선 시대 문신인 신광한(1484~1555)이 쓴 『기재기이(企齋記異)』라는 한문 소설집에 수록된 것으로, 하생이 겪은 기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하생이 죽은 여인의 무덤에서 여인과 인연을 맺는다는 '결연 모티프'를 활용하여 남녀 간의 애정과 사랑, 당대 사회상 등을 그리고 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만난다는 점에서 전기적이며,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하생이 결국 여인과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성인 행복한 결말이 잘 나타난다.

[주제] 혼사 장애를 극복한 애정의 성취와 입신양명을 통한 욕망의 실현

[구성]

발단	하생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국학(國學) 유생으로 입학하였지만, 조정의 문란한 인재 선발 정책 때문에 뜻을 굽히며 울적하게 지냄.
전개	하생은 점쟁이의 말에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한 여인과 기이한 인연을 맺게 되고, 여인은 하생에게 금척을 주며 자신의 부모님을 만날 것을 부탁함.
위기	금척을 발견한 여인의 집안 사람들에게 하생은 도둑으로 몰려 여인의 집으로 끌려가고, 여인의 부친이 결박되어 있는 하생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묻자, 하생은 모든 사연을 사실대로 털어놓음.
절정	무덤을 파서 여인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오자 여인은 다시 살아나고, 신분 차이로 혼인을 불허하던 여인의 부모는 여인의 설득에 결국 하생을 사위로 맞음.
결말	하생과 여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고, 두 아들을 낳아 행복한 삶을 살.

[핵심 한눈에 보기]



1 하생은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당시 조정이 부정부패로 어지러웠던 탓에 인재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에 등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하생이 조정에 등용되지 못한 것은 조정의 부정부패 때문이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했던 조선 시대의 작품이지만 사랑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주제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 ③ '명혼계'는 죽음의 세계로 죽은 여인이 속한 세계이고, '인간계'는 현실의 세계로 살아 있는 하생이 속한 세계이다. 이처럼 두 남녀 주인공이 속한 세계는 서로 다르며, 이를 통해 이원론적 구조가 작품 전반에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하생과 여인은 혼사 장애를 겪게 된다. 이는 명혼계와 인간계의 차이에 따른 것인데, 두 사람은 만나기 어려운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을 나누고, 하생은 그 사랑으로 죽은 여인을 살려 낸다. 이처럼 작가는 혼사 장애를 극복하고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삶에 대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⑤ 이 글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맺어진다는 전기적 요소를 활용했다는 점과 주인공이 난관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특징을 보여 준다.

2 여인의 아버지(시중)는 하생이 잡혀 온 후 그에게 신분과, 금척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다. 이에 대해 하생은 자신이 태학의 학생이며 금척을 무덤 속에서 얻었다고 답한다. 그런데 여인의 아버지는 하생을 시와 예를 말하면서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겉과 속이 다른 자라며 비난할 뿐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하생의 말을 듣고 무덤을 찾아가면서 하인에게 그를 지키게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하생이 여인에게 부탁을 들어줄 것을 약속하고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집이 무덤으로 바뀌었다. 하생은 그 무덤을 보고 여인이 죽은 것을 실감하였고 이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 ③ 여인은 되살아난 후 부모의 물음에 대답하다가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이 하생과 인연을 맺었다는 말을 하기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 ④ 하생을 잡아서 자초지종을 물을 때 주렴 안에 있던 여인의 어머니는 하생의 해명 중 자신의 딸(여인)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며 무덤을 확인해 보고자 말한다.
- ⑤ 노둑돌 위에 올려져 있는 금척을 본 여인의 몸종들은 하생이 여인의 무덤에서 금척을 훔쳤다고 생각하여 그를 도적놈이라고 비난했다.

3 하생이 노둑돌 위에 금척을 올려놓자 여인의 하인들은 하생이 금척을 훔쳤다고 오해하여 하생을 도적으로 몰게 된다(ㄱ). 한편 금척은 여인의 무덤에 묻어 두었던 것으로 여인의 부모가 하생의 말을 듣고 여인의 무덤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소재이다(ㄴ).

4 하생은 자신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박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처럼 말한 것이다. 따라서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인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이 가리키는 상황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수주대토(守株待兔)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당랑거철(螳螂拒轍)은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하석상대(下石上臺)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꺾는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을 이르는 말이다.

실전 01 너와 나만의 시간

본문 50~52쪽

1 ④ 2 ③ 3 ⑤

지문 확인 문제 1 6·25 전쟁 2 까마귀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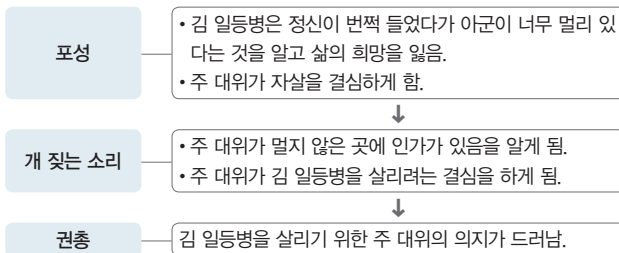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과 삶에 대한 욕구를 보여 주는 소설이다. 전쟁 중에 낙오하고 부상당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선 군인들의 상황과 내면 심리를 잘 보여 주며, 간결한 문장과 사실적인 묘사로 극한의 상황에서 발현되는 삶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로 이념 갈등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된 다른 전쟁 소설과 달리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삶에 대한 의지

[구성]

발단	6·25 전쟁 중에 낙오된 주 대위와 현 중위, 김 일등병은 부상당한 주 대위를 부축하며 산속을 헤맨.
전개	현 중위는 부상당한 주 대위가 권총으로 자살하길 바라며 무언의 압박을 주지만, 주 대위는 이를 모르는 척함.
위기	현 중위는 혼자 떠나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먼저 가라는 주 대위의 권유에도 김 일등병은 주 대위를 업고 길을 나섬.
절정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은 어느 벼랑 밑에서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꾀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희망을 갖게 됨.
결말	주 대위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해 권총으로 김 일등병을 위협하며 인가 근처로 이끌고, 자신은 죽음을 맞이함.

[핵심 한눈에 보기]



1 이 글은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죽음을 실감하고 두려워하던 김 일등병의 심리, 아군의 꾀소리를 들었을 때 김 일등병을 위해 자살을 결심하던 주 대위의 심리, 개 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김 일등병을 살리려고 결심하는 주 대위의 심리 등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하나의 이야기로만 진행되고 있을 뿐, 이야기 속에 여러 개의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이야기 속에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를 포함하여 서술하는 구성 방식은 액자식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②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 대위의 김 일등병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김 일등병을 권총으로 위협하며 인가 근처까지 다다르는 주 대위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또한 자신을 위협하는 주 대위에 대한 김 일등병의 원망 역시 서술자의 서술로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인물들 간의 대화보다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은 서술자의 서술과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인물의 의식이 흐르는 대로 써내려 가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지 않았다.

⑤ 이 글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2 주 대위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지만, 김 일등병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인다. 그러자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해 권총으로 김 일등병을 위협하며 그를 인가 쪽으로 인도한다. 따라서 ㉠은 주 대위가 김 일등병을 살리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권총은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한 주 대위의 수단일 뿐, 주 대위의 내면적 욕구를 실현시키는 소재는 아니다.

② 김 일등병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권총으로 위협하는 주 대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자신의 본질적 욕망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④ 제시된 부분에서는 김 일등병을 살리려는 주 대위의 이타적인 모습이 드러날 뿐, 주 대위의 위선과 허세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권총은 주 대위가 김 일등병을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재일 뿐,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이 굴욕적인 현실을 버릴 수 있게 해 주는 소재는 아니다.

3 ㉠에서는 주 대위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김 일등병과 주 대위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의 갈등 상황은 인가가 발견됨으로써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갈등이 주 대위의 죽음으로 해소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 김 일등병은 자신들을 버리고 간 현 중위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일등병은 절망감을 느끼고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② ㉡에서 주 대위는 아군의 꾀소리가 들리자, 자신이 자살을 하면 김 일등병 혼자만이라도 아군 진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에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꾀소리가 나는 방향을 알려 준 후 권총을 꺼내 자살하려고 하였다.

③ ㉢에서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김 일등병을 권총으로 위협한 후, 그의 등에 업혀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하게 지시하고 있다.

④ ㉣에서 주 대위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인가가 있으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주 대위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실전 02 적성의전

본문 53~55쪽

1 ④ 2 ⑤ 3 ③ 4 ①

지문 확인 문제 1 일영주 2 기러기

작자 미상, 「적성의전」

[감상] 이 작품은 선인과 악인으로 대변되는 '성의'와 '항의'의 대결 구도를 통해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간의 우애와 같은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한 고전 소설이다. 주인공 성의는 초월적 능력보다는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 내는 인물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의 모습과는 구별된다. 한편 주인공이 집을 떠나 모험과 고난 끝에 무엇인가를 찾고 돌아와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는 점에서 탐색주지의 서사 구조를 지닌다.

[주제] 고난 극복과 승리의 행취,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간의 우애

[구성]

발단	안평국의 왕자 적성의는 모친의 병을 치료할 일영주를 구하러 서역으로 떠남.
전개	성의가 선관의 도움으로 서방 세계에 이르러 일영주를 구함.
위기	항의는 동생 성의가 구한 일영주를 빼앗은 후 성의의 두 눈을 멀게 함.
절정	우여곡절 끝에 성의는 천자의 사위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고, 이를 알게 된 항의는 성의를 죽이려 하다 오히려 죽임을 당함.
결말	성의는 안평국의 왕이 되어 선정을 베풀.

[핵심 한눈에 보기]

적성의 - 선(善)	적항의 - 악(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함. • 항의의 계략으로 곤경에 빠지거나 이를 극복하고 왕위에 올라 태평성대를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와 질투가 많음. • 성의를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계략을 세우나 오히려 죽임을 당함.

1 이 글은 가상의 공간인 '안평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고전 소설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서술된 작품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간의 우애'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이 글에서 눈이 멀었던 성의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듣고 눈을 뜨게 된다. 이와 같은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해 사건 전개에 흥미를 더하고 있다.
- ③ 이 글에는 성의가 약을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 온갖 모험과 고난을 겪은 후 고국으로 돌아와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는 탐색주지의 서사 구조가 나타난다.
- ⑤ 이 글에서는 '선(善)'을 상징하는 '성의'와 '악(惡)'을 대변하는 '항의'를 설정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2 성의를 해치려는 명을 받은 적부리가 항의에게 훗날을 도모하라고 말하는 것은, 성의를 죽이고 항의를 왕위에 올리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주인공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동 인물에 대한 반동 인물의 공격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하러 성의가 서역으로 떠난 것은 주인공의 출가를 의미한다.
- ② 성의가 항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멀게 된 것은 주인공에게 닥친 위기를 의미한다.
- ③ 호 승상은 성의가 눈이 멀어 표류하고 있을 때 성의를 구출하고, 성의를 자신의 수양자로 삼는다. 이는 위기에 봉착한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 ④ 성의가 자신을 죽이려는 항의를 물리치고 안평국의 세자가 된 것은 주인공이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 더하기

고전 소설의 권선징악적 구조

권선징악은 '선(善)은 권장하고 악(惡)은 징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 유형이다. 선과 악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에 의거하기보다는 유교의 덕목인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근거를 두고 있다. 권선징악을 주제로 삼는 소설들은 올바르게 선량한 인물이 온갖 시련과 난관에 봉착하지만 결국 행복에 도달한다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다. 즉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이라는 정형화된 대조적 인물을 등장시켜 결국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3 ㉠은 어머니가 성의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며 성의의 생사 여부를 묻는 편지이고, ㉡은 성의가 자신이 그동안 겪은 일을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편지이다. 이때 항의는 ㉡을 통해 죽었다고 생각한 성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의를 해치려는 계략을 세운다. 따라서 ㉡은 주인공에게 위기를 불러일으켜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은 어머니가 성의의 생사 여부를 묻기 위해 보낸 편지로, 항의가 성의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편지는 아니다.
- ② ㉡에서 성의는 '포악한 변'을 만났다고만 했을 뿐, 항의가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는 성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항의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은 성의가 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아니라, 성의가 두 눈을 뜬 후 작성한 편지에 해당한다. 성의는 어머니가 보낸 ㉠의 내용을 듣고 두 눈을 뜨게 되었다.
- ⑤ ㉠은 성의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은 부모에 대한 성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4 ㉠은 성의가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반감과 그리운 마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에는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망운지정(望雲之情)'이 어울린다.

[오답 풀이]

- ② 망지소조(罔知所措)는 '너무 당황하거나 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④ 맥수지탄(麥秀之歎)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로,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⑤ 풍수지탄(風樹之歎)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실전 01 아우를 위하여

본문 58~60쪽

1 ⑤ 2 ③ 3 ⑤

지문 확인 문제 1 영래가 반 아이들에게 벌을 주어서 2 종잇조각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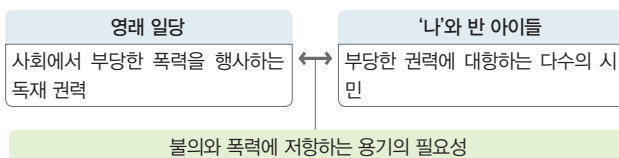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형인 '나'가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외화) 속에 '나'의 초등학교 때 경험담(내화)이 삽입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형이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을 통해 소수의 권력자와 이에 저항하는 선량한 약자들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다수의 약자들이 소수의 권력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는 용기와 단결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형이 용기를 내어 노깅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이겨 내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주제] 불의에 대한 저항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기

[구성]

도입	'나'는 군대에 간 아우를 위해 초등학교 시절 겪었던 일이 담긴 편지를 씀.
발단	충알을 찾기 위해 노깅에 들어간 '나'는 그곳에서 뼈다귀를 발견하고, 이에 놀란 '나'는 노깅에서 공포를 느낀.
전개	영래는 급장이 되어 힘센 아이들과 함께 온갖 횡포와 불의를 저지르며,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반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위기	교생 선생님이 부임하여 영래 일당의 횡포를 제지하고, 영래 일당은 이를 못마땅해함.
절정	자치회 때의 일로 교생 선생님께 양심을 품은 영래 일당은 선생님을 모욕하는 종이쪽지를 돌리고, '나'가 그들과 맞서 싸워 그들의 사과를 받아 냄.
결말	'나'는 교생 선생님의 충고를 듣고 노깅에 대한 공포를 극복함.
종결	'나'는 '나'가 얻은 깨달음을 아우에게 이야기함.

[핵심 한눈에 보기]



1 이 글의 서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주인공인 '나'는 친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에 반 아이들과 겪었던 구체적인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⑤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 모두에 대해 파악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시점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권력자의 횡포에 저항하고 사회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1950년대 한 초등학교의 학급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그것을 해결하

는 과정을 통해 우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④ 이 글은 형인 '나'가 군대에 간 동생에게 보낸 편지 내용 속에 초등학교 때 겪은 자신의 경험을 삽입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또한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동생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주며 친근감을 형성한다.

③ '나'가 산수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영래 일당에 맞서 저항하는 부분과 반 아이들까지 나서 영래 일당에 맞서는 장면에서 호흡이 짧은 간결한 대화를 주로 사용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2 (나)에는 어린 때부터 노깅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나'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나'의 내적 갈등은 '노깅'이라는 대상이 지닌 부정적인 속성, 즉 억압과 관련되어 있을 뿐, (가)에 나타난 영래와 교생 선생님 간의 갈등이나 '나'와 영래 일당 간의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반 아이들은 영래 일당의 횡포에도 입을 꼭 다문 채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가 영래 일당에 대항하기 시작하자 함께 나서서 저항한다.

② (나)에서 '나'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노깅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노깅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해 낸다.

④ (가)에서 '나'와 반 아이들은 처음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영래 일당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래 일당 역시 처음에는 권위와 힘을 내세워 반 아이들을 강하게 압박하지만, 저항이 거세지자 점차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결국 사과한다. 또한 (나)에서 '나'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노깅을 두려워하며 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포를 극복한다.

⑤ (가)에서는 영래 일당이 '나'와 반 아이들에게 사과함으로써, (나)에서는 '나' 스스로 노깅에 대한 공포를 극복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된다.

3 노깅을 두려워하던 '나'는 교생 선생님의 조언을 들은 후 그 속에 들어가서 노깅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낸다. '나'가 노깅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길을 들었다는 것은 노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였다는 것이지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나태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나'와 반 아이들이 영래 일당에 맞서고, '나'가 노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내는 것은 모두 선생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고, '곧은 소리'를 내며 불의에 저항하는 폭포와 같은 삶의 자세로 볼 수 있다.

② 영래 일당이 반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는 상황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④ '나'가 영래 일당과 맞서기 시작하자 반 아이들도 몰려들어 영래 일당에 대항하는데, 이는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 정의로운 태도를 지닌 이들이 서로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정의'를 의미하는 '곧은 소리'가 '곧은 소리'를 불러들인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보기 | 작품 분석

김수영, 「폭포」

[감상] 이 시는 거침없이 떨어지는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가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정신 자세를 '폭포'라는 자연 대상에 옮겨, 진실은 폭포와 같이 섬이 없으며, 그 결과 진실의 소리는 진실을 불러 온 세상을 진실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이라는 역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부정적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곧은 정신과 의지

실전 02 김영철전

본문 61~63쪽

1 ⑤ 2 ④ 3 ② 4 ③

지문 확인 문제 1 금주 2 아라나 장군

홍세태, 「김영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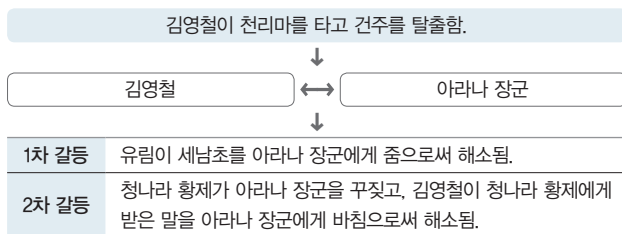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전란으로 고난을 겪은 김영철이라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전쟁 소설이다. 17세기 명과 후금(이후에 청이 됨.)이 격돌하던 시대적 격변기에 조선 백성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겪어야 했던 가족 이산과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영웅이나 이인(異人)의 활약을 그리는 일반적인 전쟁 소설과 달리 이 작품은 김영철이라는 평범한 인물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이 겪은 이산의 아픔과 종군의 괴로움, 군역의 가혹함과 같은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전쟁으로 일반 백성들이 겪는 고통

[구성]

발단	조선 시대 후금과의 전쟁을 위해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고 김영철은 지원군에 군사로 끌려감.
전개	김영철은 후금의 포로가 되었지만 아라나 장군의 눈에 들어 포로 신분에서 벗어나고 건주에서 혼인해 정착함.
위기	처자식을 버리고 건주를 탈출한 김영철은 등주에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고향으로 홀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남.
절정	계속해서 통사 일을 하며 군역을 치르던 김영철은 아라나 장군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청나라 황제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고 청노새까지 받음.
결말	김영철은 유림이 아라나 장군에게 몸값으로 준 세남초값을 갚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조정에 바치고, 늙어서도 군역을 벗지 못한 김영철은 타국에 있는 처자식을 그리워하다 죽음.

[핵심 한눈에 보기]



1 김영철은 청나라 황제에게 선물로 받은 말을 아라나 장군에게 바쳐 자신의 죽음을 면하게 해 준 은혜를 갚고 천리마를 훔쳤던 죄를 씻고자 한다.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을 돌봐준 아라나 장군에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지 이를 통해 출세하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김영철을 출세 지향적인 인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매우 비싼 세남초를 이백 근이나 주여 영철을 살리는 것으로 보아 영철이 유림에게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아라나 장군은 호의를 갖고 김영철을 도와주지만, 김영철이 자신을 배신하고 천리마까지 훔쳐 달아났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 번 김영철을 용서한 이후에도 황제에게 다시 김영철을 벌해 달라고 청한다. 이를 통해 아라나 장군이 김영철에게

원한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아라나 장군이 처음에 김영철을 용서한 것은 세남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해타산적인 아라나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④ 김영철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을 모두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청나라가 천하를 얻는 것은 모든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청나라 황제가 공동체의 통합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2 2차 갈등은 아라나 장군과 김영철이 청나라 황제 앞에서 겪게 되는 갈등으로, 김영철에 대한 아라나 장군의 분노와 노여움이 덜 풀렸던 데서 비롯되었다. 2차 갈등 상황에서 김영철이 청나라 황제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유림이 아라나 장군에게 세남초를 주여 김영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했다.
- ② 김영철은 호의를 베푼 아라나 장군에게서 탈출하였고, 이에 분노한 아라나 장군이 다시 만난 김영철을 죽이려 하는 것이다.
- ③ 김영철은 한족과 함께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탈출했던 행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청나라 황제는 여러 곳을 거처며 살아온 김영철이 자신에게 온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며 비단과 말을 선물로 주었다.

3 김영철은 자신이 도망친 것이 아라나 장군을 배반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김영철은 천리마에 욕심이 생겨 그것을 훔칠 목적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한족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 도망친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김영철은 청나라 장수와 조선 장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통역을 맡는데, 그 회의에서 아라나 장군을 만나게 된다.
- ③ 아라나 장군이 자신의 원한을 잠시 잊을 정도로 세남초의 가격이 비쌌던 당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다.
- ④ 김영철은 한 번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음으로써 청나라 황제에게 호기로운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 ⑤ 김영철이 은혜를 갚고자 아라나 장군에게 달마를 바치자 이에 감동한 청나라 황제가 청노새를 김영철에게 선물로 준다.

4 ㉠은 아라나 장군이 김영철을 알아보고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 김영철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다. 이는 김영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므로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인 ‘백척간두(百尺竿頭)’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망양지탄(亡羊之歎)은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 ④ 허장성세(虛張聲勢)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의미하는 말이다.
- ⑤ 외신상담(臥薪嘗膽)은 ‘불편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실전 01 미스터 방

본문 66~68쪽

1 ⑤ 2 ① 3 ⑤ 4 ①

지문 확인 문제 1 해방(독립) 2 영어 실력 덕분에 3 미스터 방

채만식, 「미스터 방」

[감상]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외세에 빌붙어 권력을 누리고 부를 축적한 주인공 방삼복에 대한 희화화를 통해 당대 부조리한 사회 현실과 부정적인 인간형을 풍자하고 있다. 방삼복은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집안에서 태어나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다가 서툰 영어 몇 마디를 할 줄 아는 능력으로 미군 S소위의 눈에 띄어 갑작스럽게 윤택한 삶을 살게 된 인물이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위로 재산을 모으고 권세를 누리던 백 주사가 해방 이후 신기료장수였던 방삼복에게 머리를 숙이고 청탁하는 상황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간들의 부침(浮沈)을 풍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이기적이며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풍자적·해학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권력을 좇는 기회주의적 세태와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구성]

발단	방삼복은 십여 년을 외국에서 떠돌다가 집에 돌아와 서울로 가서 신기료장수를 하며 겨우 연명함.
전개	방삼복은 해방 직후 미군 S소위의 통역으로 취직해 갑작스럽게 권세를 누리게 됨.
위기	해방 직후, 친일 행각으로 모았던 재산을 사람들에게 빼앗긴 백 주사는 방삼복에게 복수를 부탁함.
절정, 결말	방삼복이 벌은 양치말이 우연히 S소위에게 떨어지고, 이에 화가 난 S소위에게 방삼복이 턱을 얻어맞음.

[핵심 한눈에 보기]

방삼복	주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주의적이고 부도덕한 인물 • 외세에 빌붙어 출세를 도모하는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상을 풍자함. • 부정적 인물이 대접받는 부조리한 해방 직후의 현실을 비판함.

1 이 글에서는 외부에 있는 서술자의 시각으로 주인공 방삼복의 태도 및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을 뿐, 등장인물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정황을 모두 알고 내용을 전개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였다.
- 임기응변식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S소위에게 전달한 방삼복의 행동을 '조선을 소개한 공로'라며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이 글은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즉, 해방 직후라는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제시하여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인 인물의 행동을 실감나게 그려 내고 있다.
- 방삼복이 새롭게 살게 된 호화스러운 주택의 모습을 묘사하여 출세한 방삼복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 <보기>는 해방 후 격변기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웠던 사회적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주인공의 행위에 주목할 때, 방삼복은 결국 외세의 힘에 기생하여 권세를 누리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골몰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이 글에서는 역사 의식이나 민족 의식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방삼복이 외세에 빌붙어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이 글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나타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제도 건설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해방 후에 신기료장수였던 방삼복이 출세를 하긴 하지만, 이는 방삼복이 뛰어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여 미군 S소위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 이 글에서는 정치나 경제 어느 분야로도 제도 개선을 꾀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3 경회루는 조선 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인데, 방삼복은 경회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S소위에게 경회루가 왕이 술을 마시고 춤추던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소위의 질문은 방삼복의 임기응변식 대응과 부족한 지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해방되는 날에 방삼복은 신발을 고치는 신기료장수였으므로, 보잘것없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 미군을 태운 꼬마차가 거리에 그득히 퍼진 것은 미군정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려 준다.
- 미군 장교가 방삼복을 통역으로 고용하여 방삼복의 출세길을 열어 준 계기가 된 사건이다.
- 방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불리는 모습에서 발빠르게 사회 변화에 편승한 그를 풍자하고 있다.

4 방삼복은 ㉠~㉢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에 대한 태도를 계속 달리한다. ㉠에서는 독립이 배부르냐며, 독립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에서는 독립으로 생긴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시 ㉢에서 독립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방삼복이 독립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자꾸 바꾸는 이유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방의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방삼복은 해방에 따른 사회의 변화가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느꼈고, 그에 따라 태도가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방삼복은 S소위의 통역 일을 하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이익을 찾아 신기료장수 일을 그만둔 것이지, 해방 때문에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 방삼복이 원래 기대하던 해방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오히려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해방 이전에 방삼복은 해방에 대해 어떠한 생각도 갖지 않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달리 판단했기 때문에 방삼복의 태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만약 현재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와 같은 태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전 02 만복사저포기

본문 69~71쪽

1 ⑤ 2 ④ 3 ④ 4 ⑤

지문 확인 문제 1 (은)주발 2 불교 사상 3 전기적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감상]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인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 중 하나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요소가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며, 지고지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구성]

발단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라는 절에서 살던 서생은 부처에게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는 소원을 빌며 부처와 저포 놀이를 하여 이기게 됨.
전개	불좌 밑에 숨어 기다리던 서생은,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며 배필을 얻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연을 맺고 행복한 시간을 보냄.
위기, 절정	사흘 뒤 여인은 서생과 헤어지면서 은그릇(주발) 하나를 주며 재회를 약속하고, 서생은 약속 장소에서 여인을 기다리다가 대상을 치르러 가는 여인의 부모를 만나 그간의 일을 고하고, 여인과 하룻밤을 보냄.
결말	서생은 헤어진 여인을 그리워하며 혼자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게 됨.

[핵심 한눈에 보기]

서생	진실한 사랑	죽은 여인
이승에 속한 사람		저승에 속한 사람

→ 작품 전반에 사람 사이의 인연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이 드러나 있음.

1 이 글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간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대체로 도술을 부린다거나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용궁에 가 보는 것과 같은 기괴하고 신기한 내용이 제시되는 것을 전기성이라고 하는데, 『금오신화』에 수록된 「만복사저포기」는 대표적인 전기 소설이다. 작가는 서생과 여인의 사랑을 통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강한 사랑의 울림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 부정적 상황에 대해 비판하거나 공격하면서 진술하는 풍자적 어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②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평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③ 이 글의 서술자는 부분적으로 사건과 인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 제시의 방법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④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 인물의 행동과 태도, 심리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 이 글에서 여인의 부모님은 서생과 여인의 사랑을 반대하지 않았다. 딸(여인)의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었던 주발을 들고 나타난 서생을 의아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서생의 설명을 듣고 딸과 함께 보련사로 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님과 딸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죽은 여인이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는데, 이는 중생이 죽은 뒤 그 번뇌와 업(業)에 따라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불교 사상이 작품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서생은 여인과 인연을 맺고 사랑을 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매 순간 여인을 위해 진실되고 충실하게 행동하였고,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속세를 떠났다. 이러한 서생의 태도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
- ③ 이승과 저승의 교감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지녀야만 형상화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작가의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⑤ 이 글의 주제는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다. 따라서 진실하고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서생은 여인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여인을 잊지 못한 채 장가도 들지 않고 속세를 떠난다. 이를 통해 서생이 '진심에서 우리나라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 즉, 일편단심(一片丹心)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 서생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며 '은인자중(마음속에 감추어 참고 견디면서 몸가짐을 신중하게 행동함)'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서생은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여인과 여인의 부모를 대한다. 따라서 서생을 '표리부동(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서생은 여인과의 만남을 허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인의 부탁대로 자신과 여인이 특별한 관계를 여인의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여인의 부모를 기다린 것이다. 또한, 서생은 여인의 부모에게 아부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생이 '교언영색(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을 잘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서생은 여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불좌 밑에 숨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생이 '선견지명(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개녕사는 부모가 죽은 여인을 정식 장례도 치르지 못하여 임시로 묻어 놓은 곳 옆에 있는 절로 현실의 공간이다.

[오답 풀이]

- ① 좁다란 판자방은 만복사 법당 옆의 행랑이 끝난 곳에 있는 공간으로, 서생과 여인이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다.
- ② 시녀가 여인을 시중드는 상황으로 보아 여인의 신분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말쑥하고 무늬가 없는 기구는 제사상에 쓰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강렬한 술 냄새까지 난다는 것은 결국 여인이 이승의 사람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이다.
- ④ 여인의 부모님은 여인의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었던 사발을 보고 서생이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아하게 여긴다.

실전 01 사평역

본문 74~76쪽

1 ③ 2 ② 3 ⑤ 4 ⑤

지문 확인 문제 1 자신의 돈을 훔쳐 도망친 사평역을 찾기 위해 2 사평역 대합실 3 송이논, 성에, 난로

임철우, 「사평역」

[감상] 이 작품은 객재구 시인의 시 「사평역에서」를 토대로 쓰여진 소설로, 시와 동일한 공간인 사평역에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켜 이들의 사연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시골 간이역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념이 나타난다. 험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1970~1980년대 산업화의 이면에 묻혀 버린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산업화에 밀려 소외된 사람들의 쓸쓸하고 고달픈 삶

[구성]

발단	시골 간이역에 폭설이 내려 기차가 연착하고, 대합실에는 몇몇의 사람들이 막차를 기다리며 난로 주변에 모여 있음.
전개	대합실에 모인 아홉 사람이 저마다의 삶과 사연을 떠올림.
절정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념에 빠짐.
결말	완행열차가 두 시간 늦게 도착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떠남. 대합실에는 미친 여자만이 잠들어 있고, 역장은 난로에 부을 톱밥을 가지러 감.

[핵심 한눈에 보기]

사평역	고단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성찰하는 공간
톱밥 난로	•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피난처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회상과 성찰의 계기를 부여하는 매개체 •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을 서로 교감하게 하는 매개체
열차	• 기다림의 대상 • 쉽게 오지 않는 행복

1 '그녀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 이날 쫓아 내려온 거였다.'라는 부분에서 서울 여자와 사평역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 즉 사평역이 서울 여자의 돈을 훔쳐 도망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서울 여자가 느낀 감정 역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이 글에서 '톱밥 난로'나 '열차' 등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 소재이지만, 이러한 소재들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이 글은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불을 쬐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의 회상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즉, 순환적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고 현재(대합실의 상황)와 과거(사람들의 회상)가 교차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이 글에서 장면 전환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사평역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 이 글에서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은 사평역이 살고 있는 마을이 지독히도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이는 사평역의 어려운 처지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을 통해서 인물들이 마을에 은둔하며 살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서울 여자의 돈을 더 훔쳐 갈 수 있었음에도 삼십여 만 원 정도만을 가지고 갔다는 점은 독자들이 사평역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며, 큰돈을 훔치는 것이 사평역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은 독자들을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주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 사평역은 자신의 아이들이 거지 신세가 되어 이 집 저 집에 맡겨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 걱정에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다.
- 사평역을 만나면 머리채부터 휘어잡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서울 여자가 사평역의 어려운 형편을 목격하고 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마저 사평역에게 주고 떠나는 모습에서 서울 여자가 인정이 많은 성품임을 알 수 있다.
- 사평역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직이 내뱉은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뭐이긴다....."라는 말을 듣고 각자 자신의 고달픈 삶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3 이 글에서 서울 여자는 자신의 돈을 훔쳐 달아난 사평역에게 분노를 느꼈지만 사평역의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고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또한 서울 여자는 사평역의 어려운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이며 그녀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서울 여자의 모습을 통해 인간에 대한 연민, 배려와 이해는 인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도 극복하게 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이 글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가족 간의 애정과 화합을 통해 이겨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이 글에서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려는 자세는 드러나지 않는다.
- 고단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서울 여자가 아니라 사평역이다.
- 서울 여자가 물질보다 인간애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으로 물질 만능 주의가 만연한 세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이끌어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4 이 글에서 '톱밥 난로'는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열차'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대상으로 쉽게 오지 않는 행복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 이 글에서 현실 도피적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 이 글은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을 바라보며 각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과 ㉡이 인물들에게 앞으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 ㉠은 인물들에게 사색의 분위기를 제공하는 소재이지 삶의 애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은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지만, ㉡은 인물들의 갈등 혹은 그것의 해결과 관련이 없다.

실전 02 최척전

본문 77~79쪽

1 ⑤ 2 ④ 3 ② 4 ④

지문 확인 문제 1 옥영 2 정유재란 3 몽석

조위한, 「최척전」

[감상]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 때문에 겪는 한 가족의 이산의 아픔과 가족애를 그려 내고 있다. 17세기 후반에 나온 대부분의 군담 소설들과 달리 민족적 영웅담을 담아내지 않고, 평범한 인물이 겪는 고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외 무역이 활발하였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공간적 배경을 조선에서 벗어나 일본, 중국, 안남(베트남) 등으로 확장하고 있고, 여주인공인 옥영을 강인한 의지로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전의 소설 작품들과 구별되고 있다.

[주제] 전쟁을 배경으로 한 남녀의 사랑 및 가족 이산과 재회의 과정

[구성]

발단	최척은 정 진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니던 어느 날, 옥영이 보낸 구애의 시를 받고 사랑에 빠져 혼인을 약속함.
전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척은 의병대에 합류하였다가 돌아와 옥영과 혼인을 하여 몽석을 낳음.
위기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최척은 가족들과 헤어져 중국으로 건너가고 옥영은 일본에 포로로 잡혀감.
절정	몇 년 후 최척은 안남으로 장사하러 다니다가 옥영과 극적으로 상봉함. 이후 두 사람은 중국에 돌아와 살며 몽선을 낳고, 몽선이 성장하자 홍도를 며느리로 맞이들임. 한편 후금과 명나라의 전쟁으로 최척은 후금의 포로가 됨.
결말	최척과 몽석이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 탈출하고, 옥영은 몽선과 며느리 홍도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재회하게 됨.

[핵심 한눈에 보기]

이동 경로	최척과 옥영의 이별과 재회 과정
남원	정유재란의 발발로 최척과 옥영이 이별함.
중국, 일본	최척은 장사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옥영은 왜병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가게 됨.
안남	최척과 옥영이 안남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됨.
중국 항주	후금의 침략으로 최척과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됨.
남원	20여 년 만에 온 가족이 재회하여 행복하게 살.

1 이 글은 ‘정유년 팔월’과 같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영남 지방’, ‘남원’, ‘지리산 연곡’, ‘섬진강’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이 글에서 꿈과 현실을 교차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이 글에서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는 것은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이 아니라, 후에 최척과 옥영이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 지낼 때의 사건이 나타난 부분에 해당한다.
- 이 글에서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남원과 지리산 연곡, 섬진강 등으로 모두 사실적 공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심 씨와 정 진사가 나누는 대화는 단지 옥영과 최척의 결혼을 의논하고 허락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 글에서 당대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은 왜적의 침략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모습, 포로로 적병에게 끌려가는 모습 등이다.

[오답 풀이]

- 최척이 옥영과의 혼례 날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임진왜란 중에 의병대에 합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전란 때문에 겪는 이별의 아픔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유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과 ‘남원’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최척의 가족들이 피란을 떠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글이 임진왜란의 휴전 교섭이 결렬된 후에 발생한 정유재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척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백성들의 위기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자신 역시 왜병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는 장면을 통해, 최척이 다른 군담 소설의 영웅들과 다르게 평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옥영과 최척이 조선이 아닌 중국과 일본을 거쳐 먼 안남(베트남) 지방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 장면은 대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3 옥영은 의병으로 끌려가 혼례 날까지 돌아오지 않은 최척을 걱정하며 시름에 잠겨 있을 뿐이지, 최척을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정 진사가 심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지금은 그가 한미한 선비지만 사람됨이 옥과 같으니 ~ 암 그만한 사람은 흔치 않아.”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최척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난하고 부자이고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 지요. ~ 옥영이의 배필로 삼으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심 씨가 최척의 가난을 염려하였지만, 결국 혼인을 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혼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최척에게 “지금이야 어느 때인데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 혼사를 들먹이는 것이냐. ~ 왜책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애정보다 국가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변사정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죽어가는 와중에도 최척에게 “도련님, 도련님은 어찌 되셨는지…….”라고 사력을 다해 말하며 몽석을 걱정하는 춘생의 모습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몽석의 안전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에서는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최척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는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각골통한(刻骨痛恨)’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내외외환(內憂外患)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의미한다.
-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의미한다.
- 중언부언(重言復言)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또는 그런 말’을 의미한다.
- 천우신조(天佑神助)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실전 01 결혼 / 차마설

본문 82~84쪽

1 ⑤ 2 ② 3 ③ 4 ⑤

지문 확인 문제 1 덤 2 넥타이 3 말

가 이강백,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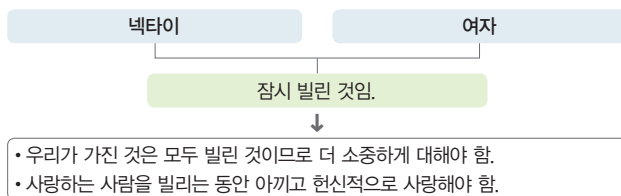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소유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풍자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희곡이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고, 남자가 읽는 이야기책 속의 사건을 극 중 현실로 바꾸어 상황을 관객에게 설명하는 독특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무대와 객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소품을 관객에게 빌리는 등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 사용되어 실험성이 돋보인다. 작가는 결혼을 소재로 하여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자신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누군가로부터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진실한 사랑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태도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구성]

발단	남자는 결혼을 위해 자신을 부자처럼 보이도록 여러 물건을 빌린 후 맞선 볼 여자를 기다림.
전개	초조한 기다림 끝에 남자는 여자를 만나지만 빌린 물건을 하나씩 빼앗김.
위기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지만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게 된 여자는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함.
절정	남자는 여자에게 진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사랑을 받아 줄 것을 설득함.
하강·대단원	여자는 남자의 진심을 깨닫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함께 결혼을 하려 감.

[핵심 한눈에 보기]



나 이곡, 「차마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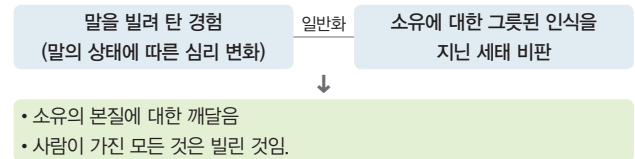
[감상] 남의 말을 빌려 탄 개인적인 경험을 소재로 삼아 소유에 대한 보편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제시한 작품이다. 글쓴이는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소유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일반화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빌린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망각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의 그릇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주제]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구성]

사실(경험)	빌린 말이 좋은 말인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른 글쓴이의 심리 변화
의견(깨달음)	인간의 그릇된 소유욕에 대한 비판

[핵심 한눈에 보기]



1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극 중 시간의 흐름을 전환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배우가 관객에게 물건을 빌리기도 하고 말을 거는 것에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이 작품은 희곡이므로 등장인물인 남자의 대사를 통해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하인이 신는 '엄청나게 큰 구두'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 남자가 관객에게 "이게 당신 겁니까? ~ 꼭 돌려주십시오.", "내 말을 들어 보시오, ~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와 같이 말을 걸면서 극중 상황에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 남자는 여자에게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와 같이 말하면서 빈털터리인 자신의 정체를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다.
-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된 여자는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 남자는 자신에게 넥타이를 빌려 줬던 남성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있다.
- 하인은 남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될 때마다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3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 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글쓴이의 일상적 경험에서 시작해 이를 일반적인 소유의 태도로 일반화함으로써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며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나)에서 어순의 도치가 나타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등은 독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형을 사용한 설의적 표현이다.
- (나)에서는 좋은 말을 빌렸을 때와 좋지 않은 말을 빌렸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마음 상태가 달라졌음을 말하고 있다. 글쓴이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처지를 대조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나)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상황은 자신의 실제 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가)의 남자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젠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으 겠지. 없으니깐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보기>의 관점을 참고할 때, (가)의 남자와 (나)의 글쓴이는 소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남자는 소유란 잠시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그가 많은 물건을 소유하려 하였고 나아가 물건만으로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 ② (가)의 남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누군가에게서 빌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가)의 남자는 소유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를 소유하느냐는 남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 ④ (나)의 글쓴이는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소유에 대한 인간의 심리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빌린 것의 가치에 따라 자신의 가치도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 | 작품 분석

법정, 「무소유」

[감상] 이 작품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유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수필이다. 사색적이며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며 자기 고백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독자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주제]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 때 참된 자유와 마음의 평정을 얻음.

실전 02 뿌리 깊은 나무 / 노신

본문 85~87쪽

1 ⑤ 2 ② 3 ④ 4 ⑤

지문 확인 문제 1 독 2 등불 3 밤

가 이정명 원작/김영현·박상연 각색, 「뿌리 깊은 나무」

[감상] 이 작품은 세종(이도)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대본이다. 이도는 무력이 아닌 문(文)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고자 하지만 일본에 의해 집현전 학사들이 살해되자 갈등에 빠지게 된다. 제시된 부분은 이도가 정치적 신념 차이를 아버지와 대립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학사들의 죽음을 자책하는 장면으로, 이도의 내적 갈등과 고뇌가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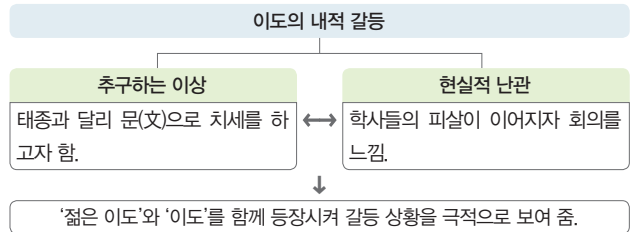
[주제] 한글 창제에 담긴 이도의 이상적인 정치 이념

[구성]

발단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태종과 이도(세종)가 갈등하고, 이도는 어릴 적 정기준을 만난 일을 회상함.
전개	비밀리에 한글 창제를 추진하던 이도 앞에 비밀 결사 일본이 나타나 집현전 학사들을 살해하고, 이 일로 이도는 갈등에 빠짐.

절정	일본은 신하들과 유생들에게 이도가 한글을 창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도는 반대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글 창제를 계속함.
하강	이도는 자신의 편이라고 여겼던 백정 가리온이 일본의 수장 정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글 반포를 천명함.
대단원	이도는 소이, 무휼, 강채윤의 희생 덕분에 한글 반포에 성공함.

[핵심 한눈에 보기]



나 김광균, 「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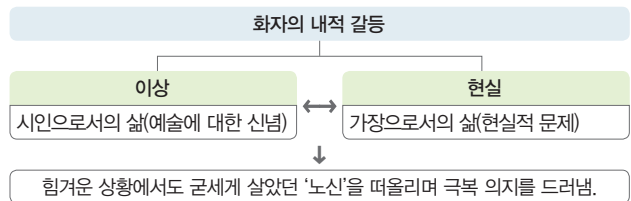
[감상] 이 시는 시인으로서 시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과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시인인 화자는 ‘먹고 산다는 것’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을 염려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다 문득 ‘노신’을 떠올리면서, ‘상심한’ 상황 속에서도 ‘군세게 살아온’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시인 자신이 현실적 문제로 겪는 고뇌와 그 극복 의지

[구성]

1연	현실적 문제 때문에 고뇌하는 시인 가장의 불면의 밤
2연	노신을 생각하며 다져 보는 현실 극복 의지

[핵심 한눈에 보기]



1 (가)에서 갈등하던 ㉠과 ㉡가 화해에 이르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나)에서 ㉠과 ㉡는 화해가 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가 현재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과 ㉡의 적대적 대립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는 ㉡를 떠올리면서 그의 의지를 본받으려 하고 있다.
- ② (가)에서 ㉠는 자신이 추구하려는 정치가 시련에 부딪혀 갈등을 겪고 있고, (나)에서 ㉠는 예술가로서의 삶과 생활인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각각 ㉠과 ㉡를 떠올린 것이다.
- ③ (가)에서 ㉠는 문(文)으로, ㉡는 무(武)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는 ㉡와 마찬가지로 문학적 신념을 추구하고자 한다.
- ④ (가)에서 ㉠는 ㉡와는 다른 정치를 펼치려 하고 있으며, (나)에서 ㉠는 ㉡를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S# 57에서 이도는 '괴식 웃고는 허허로운 표정'을 짓는데, 이는 자신이 품었던 이상을 실현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물이 느끼는 회의감과 허탈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S# 57에서 태종의 환영을 제시한 것은 태종과는 다른 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자신의 이상에 대한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S# 58에서는 이도의 불안감과 회의감을 극적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집현전 안'을 어렵게 처리하였다.
 ④ S# 58에서는 과거의 젊은 이도가 현재의 이도를 비웃듯 쳐다보게 함으로써 인물의 자조적인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S# 58에서 이도가 과거의 자기 자신인 젊은 이도의 역사를 잡는 행동은 현재 이도가 겪고 있는 격렬한 내적 갈등의 상황을 극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 [A]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부러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온 - 세기가 눈물에 젖어 있는'은 현실적 문제로 괴로워하는 화자의 상황과 시적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과장법을 사용한 표현이다.
 ② '여기 하나의 ~ 있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는 '등불'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의인법을 활용하면 화자와 대상 또는 독자와 대상 사이에 친근감이 형성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⑤ '속삭어린다', '~이 있다'와 같은 단정적인 어조는 주로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

4 (나)의 화자는 예술가로서 시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과 생활인으로서 겪는 현실적 고통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나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따라서 ㉔은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자신의 문제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이도는 방전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② (가)에서 이도가 내적 갈등에 빠진 이유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젊은 학사들이 일본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㉔은 (나)의 화자를 가리킨다. 화자는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처자식의 머리맡에서 '시(詩)'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괴로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고뇌에 빠져 있다.
 ④ (나)에서 ㉔과 '지나는 돌팔매'는 화자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전 01 우계전 / 참깨를 털면서

본문 90~92쪽

1 ② 2 ③ 3 ③

지문 확인 문제 1 성인 2 우계 3 휘파람 4 할머니

가 이익, 「우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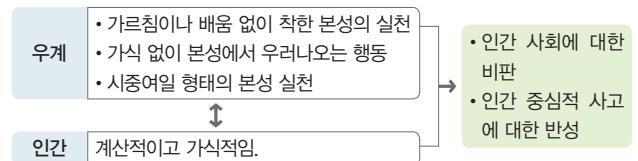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죽은 어미를 대신하여 아우 병아리를 정성을 다해 길렀던 암탉의 훌륭한 본성과 성품에 대해 쓴 수필이다. 순수한 사랑과 희생으로 어린 병아리를 키우던 닭의 우애 있는 행동에 주목해 올바른 삶의 태도를 전달하고 있다. 글쓰이는 병아리를 헌신적으로 기르고 보호했던 암탉의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이와 대비되는 인간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주제] 우애의 실천의 중요성

[구성]

1	들짐승으로부터 부상을 입고 도망친 암탉 한 마리
2	어미 닭을 대신하여 아우를 돌보는 우계의 헌신
3	우계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4	가식 없는 우계의 우애 찬양
5	우계가 보여 준 우애의 의의
6	사람들에게 귀감을 삼고자 만든 우계총

[핵심 한눈에 보기]



나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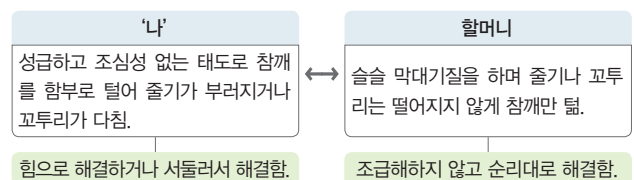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참깨를 터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인내와 느림을 통한 완성이라는 지혜를 일깨우고 있는 시이다. '나'는 세고 빠르게 내리치면서 '한 번 내리치는 데도' 쏟아지는 참깨를 보고 깨감을 느낀다. '나'의 이러한 행동과 생각은 순각적인 충동이나 욕망의 발산에서 오는 깨감을 만끽하려 하고,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극대화된 결과를 얻으려 하는 도시적 삶의 방식과 관련이 깊다. '나'의 행동에 대한 할머니의 점잖은 꾸중은 그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주제] 참깨를 털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

[구성]

1~4행	참깨를 터는 할머니와 '나'
5~11행	참깨를 털며 느끼는 '나'만의 기쁨
12~16행	참깨를 터는 모습에 대한 할머니의 꾸중과 '나'의 반성

[핵심 한눈에 보기]



1 (가)의 글쓴이는 닭을 길렀던 경험에서 사랑과 희생의 태도에 관한 깨달음을 얻었고, (나)의 화자는 참깨를 털었던 경험에서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따라서 (가)의 글쓴이와 (나)의 화자는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글쓴이는 닭의 행동을 보며 느낀 바를 서술하였고, (나)의 화자는 힘껏 참깨를 털다가 꾸중 들은 일을 쓰고 있으나 내적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 ③ (가)에서 죽은 어미 닭을 대신하여 아우 병아리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닭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자기 위안의 방법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 ④ 대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가)에만 해당한다.
- ⑤ (가)에서는 인간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고, (나)에서는 순박적인 충동이나 욕망의 발산에서 오는 쾌감을 만끽하려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태도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개선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2 (가)의 글쓴이는 동생 병아리들을 보살피는 어린 닭의 모습을 보며 짐승도 인간 못지않은 본성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간의 귀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우계의 모습을 통해 글쓴이는 인간만이 뛰어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말만 내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죽은 어미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아우 병아리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닭의 희생적 삶을 찬양하고 있다.
- ② 우계가 날짐승으로서 인간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였다고 칭송하는 것에는 인간만이 뛰어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어미를 대신해 동생인 병아리 떼를 불러서 품어 주는 어린 닭의 모습에서 짐승도 인간 못지않은 본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길가에 암탉의 무덤을 만들어 오가는 이가 보게 하겠다는 것은 우계의 우애의 실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암탉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3 ㉠은 참깨를 한꺼번에 많이 털기 위해 조심성 없이 힘을 가하는 '나'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할머니를 위해 열심히 농사일을 도우려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산그늘 내린 발귀퉁이'는 농촌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 것으로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할머니는 참깨를 털 때 힘껏 정신없이 털어대는 '나'와는 달리 '술술 막대기질'을 하며 터는데, 이는 할머니의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④ '도시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 본 나'는 '화자'가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음을 보여 주는 부분으로, 화자가 농사일을 경험해 보지 못해 농사일에 서툴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 ⑤ '정신없이 털다가'는 참깨 터는 일에 쾌감을 느껴 무분별하고 조심성 없이 참깨를 터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으로, 분별없이 일을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실전 02 **울정기 / 만흥**

본문 93~95쪽

1 ④ 2 ② 3 ③ 4 ③

지문 확인 문제 1 늙은 철학자 2 분에 심은 나무 3 자연

가 계몽록, 「울정기」

[감상] 이 작품은 글쓴이에게 창작의 바탕이 되어 준 고향의 밤나무에 대한 예찬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고향에서 할아버지가 정성껏 돌본 밤나무를 '늙은 철학자'라고 명명하며 다른 나무들과의 대조를 통해 예찬하고 있다. 특히 밤나무가 지닌 의연한 풍모를 제시하며 글이 잘 안 풀릴 때 밤나무 그늘을 거닐었던 경험을 상기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고향의 밤나무 그늘 대신 근처 다방을 찾았던 경험을 제시하면서, 점점 속인(俗人)이 되어 가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주제] 고향 밤나무에 대한 예찬과 그리움

[구성]

1	밤나무에 대한 인상
2	밤나무의 외형
3	밤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애착
4	밤나무에 대한 조부의 애착
5	글쓴이에게 특별한 밤나무의 의미
6	밤나무에 대한 그리움
7	창작의 고통
8	밤나무가 부재함을 인식하고 느끼는 허무감
9	밤나무를 대신 할 대상을 찾아 나선 글쓴이
10	밤나무를 대신 할 대상을 찾지 못한 글쓴이
11	현대의 인위적인 속성에 대한 비판 및 자연적 속성을 지닌 밤나무에 대한 그리움

[핵심 한눈에 보기]

고향의 밤나무	서울의 다방에 있는 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대상 글쓴이가 닮고자 하는 대상 자연 그대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위적이고 신선함이 없는 공간 현대화된 속인들이 살아가는 공간 불쾌감을 주는 대상

나 윤선도, 「만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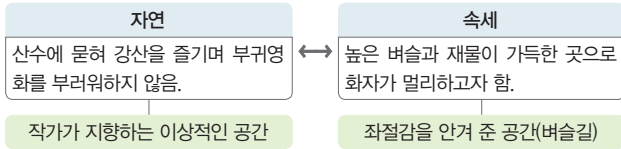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총 6수의 연시조로,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사는 풍류와 즐거움을 노래한 시조이다.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살아가면서 속세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사는 생활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 또한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사대부의 유교적 층의 사상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속세에서의 벼슬살이에 좌절하여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이 자기의 분수에 맞다고 생각하며 그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구성]

제1수	안분지족의 삶
제2수	자연에 묻혀 노니는 즐거움
제3수	자연에 몰입된 삶의 즐거움
제4수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
제5수	자연에 귀의한 삶에 대한 만족감
제6수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핵심 한눈에 보기]



1 (가)에서는 밤나무를 ‘늙은 철학자’라고 부르며 고향 밤나무에 대한 예찬과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산’은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의 주체로 의인화되어 제시되어 있으며, 화자가 몹시 좋아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오답 풀이]

- 계절의 흐름을 활용해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는 부분은 (가), (나)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나)에서는 ‘이러하랴’, ‘누연누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만,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 (가), (나) 모두 감각을 전이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2 (가)의 ‘연희장(延禧莊)’으로 넘은 산택 길’은 산이기는 하나 사람들에게 밟혀 죽은 풀밭과 먼지가 있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연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기는 공간이다. 그렇다고 글쓴이가 거부해야 할 속세의 공간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가)의 ‘다방’이나 다방의 ‘분에 심은 나무’는 고향 마을에 있는 밤나무 그늘 아래라는 자연 공간과는 대립되는 곳으로 속세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의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뉘집을 짓’는 일은 자연 속에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살겠다는 것이므로 자연에 은둔하려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 (나)의 ‘삼공(三公), 만승(萬乘)’은 각각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나타낸 말로, 자연 속에서 소박한 생활을 하려는 화자가 멀리하고자 하는 속세의 인위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 (나)의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알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화자가 비록 자연에 묻혀 있지만 속세의 생활에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3 화자의 입장에서 ㉠은 세속적인 존재로, 자연에 묻혀 은둔했던 ‘소부 허유(巢父許由)’와 유사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은 속세의 사람들로 화자가 관여하지 않는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말아 살아가는 존재들을 가리킨다.
- ㉡은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로, ‘너나쁜 일’, 즉 세속의 일과 대조되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 ㉢은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는 일로, 화자가 ‘먼 뉘를 바라보니’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은 하늘이 화자의 게으른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산(江山)을 덕히라’고 시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 글쓴이가 창작이 막힐 때마다 밤나무 아래를 거닐며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는 데서 ㉢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 96~102쪽

- 01 ④ 02 ① 03 ② 04 ② 05 ① 06 ④ 07 ④
08 ④ 09 ③ 10 ⑤ 11 ④ 12 ② 13 ⑤ 14 ⑤
15 ③

[01~04] 김준오, 「서정시에서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문제」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가) 김준오, 「서정시에서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문제」

[감상] 이 글은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일체감)이라는 서정시의 특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인이 서정시를 쓸 때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인 동화와 투사에 관해 설명한 뒤, 서정적 감동이 아닌 파토스적 감동을 주는 현대시들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주제]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서정시의 특성과 파토스적 감동을 주는 시

[구성]

1문단	서정시의 특징인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2문단	동화와 투사로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서정시
3문단	파토스적 감동을 주는 시

(나)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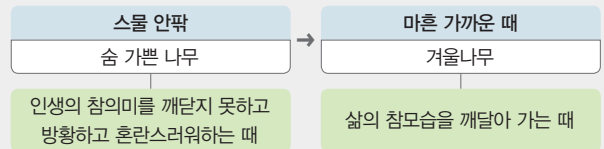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나무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 대응시켜 노래한 시이다.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리며 자라던 여름나무 모습에서 화자는 스물 안팎 자신의 젊은 시절 숨 가쁘게 살던 때를 떠올린다. 또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벼를 것을 벗어 버린 양산한 겨울나무의 모습에서는 마흔 가까운 중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겨울나무처럼 옷을 벗고 탕에 들어앉은 화자는 겨울나무가 자신에게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며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조금씩 확인해 나가고 있다.

[주제] 겨울나무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

[구성]

1연	숨 가쁜 나무처럼 격정적이었던 젊은 날의 삶
2연	겨울나무처럼 벼를 것을 벗어 버린 마흔 가까운 때의 모습
3연	겨울나무에서 삶의 참모습을 확인하는 기쁨과 즐거움

[핵심 한눈에 보기]



(다)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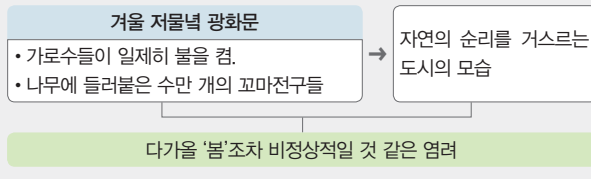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인간이 이룩한 도시 문명이 지닌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조망한 시이다. 화자는 수만 개의 꼬마전구로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겨울밤 광화문 거리의 풍경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언뜻 보면 ‘손뼉을 칠 뻔’할 정도로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이 풍경의 이면에는 고통 받는 겨울나무가 있음을 화자는 주목하는 것이다. 나무가 휴식을 취해야 할 겨울밤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나무가 ‘이상한 광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바뀌었음을 고발하고 있다.

[주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 비판

[구성]

1연	겨울밤 가로수에 일제히 켜지는 수만 개 꼬마전구들
2연	나무가 잠들 수 없게 불을 켜 놓은 권력들
3연	교란당하고 있는 겨울나무와 사람들의 처지

[핵심 한눈에 보기]



01 화자에게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겨울 나무의 모습에서 화자는 대상과의 동일성을 느낀다. 이는 실제로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대상을 자아의 욕망에 적합하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맞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원숙한 경지의 기쁨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1연은 화자가 여름날 우거진 수풀과 숨 가쁜 나무의 모습에 스물 안팎 젊은 나이 때 자신의 모습을 상상적으로 투사한 것이다. 그때 화자는 '사랑', 즉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고 하였다.
- 겨울이 되어 나무가 잎사귀들을 떨어 낸 모습은 마흔 가까운 나이에 이른 화자의 모습에 대응된다. 헐벗은 나뭇가지의 모습이 중년 화자의 앙상한 손등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 화자가 옷을 벗고 탕에 들어앉아 있는 상황은 겨울나무가 나뭇잎을 다 떨군 것을 옷을 훌훌 버린 것처럼 표현한 부분과 서로 대응한다.
- 시적 상황과 화자의 처지가 서로 조응하고 있으므로 노을이 지는 시간은 인생의 황혼기, 즉 중년 혹은 그 이후의 삶을 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2 (나)는 겨울나무를 의인화하여 '부끄럼 없이 /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는 모습, '나를 향해 / 손을 흔들며 / 기쁘게 다가오'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앙상한 겨울나무의 상황을 부각하였다. 또한 (다)는 '세종문화회관'을 의인화해 '두 눈 뜨고 있'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힌 도시 문명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나), (다)에서는 주로 '~다'를 사용하여 시를 전개하였다.
- (다)에는 '광화문 네거리'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지만, (나)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 (나)와 (다)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다.
- (나)에서는 '부엌(연기나 안개가 낀 것처럼 선명하지 못하고 조금 허옇다.)'의 활용형인 '부연'을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부우연'으로 써서 노을의 감각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지만, (다)에서는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찾을 수 없다.

03 ㉠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최고조로 첨예화되었던 순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순간에 대한 언급에 가깝다. 수만 개의 꼬마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는 나무들의 모습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부정적 현상임에도 화자는 순간적으로 그

휘황한 모습에 매료되어 '불꽃나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뼉을 칠 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첨예화된 것이 아니라 자아가 자신과 갈등할 만한 부정적 세계의 모습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상실했던 상황에 대한 언급이다.

[오답 풀이]

-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것이 소리인데 어두워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역설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겨울나무를 괴롭히는 도시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
- 어둠을 마치 박멸해야 할 병균 같은 것으로 취급하며 밤을 휘황하게 밝혀 놓은 권력은 화자가 타개하고자 하는 부정적 세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서 '엽록소를 버린' 상태인 데다가 밤에는 빛도 없으니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함'의 세계의 모습이다. 그러나 화자가 보고 있는 '있음'의 세계는 그와 달리 인위적인 불빛에 의해 겨울나무들이 쉬지 못하고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괴리된 세계인 것이다.
- ㉠을 보면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이 비단 겨울나무들뿐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주목하는 부정적 상황이 사람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04 두 작품에 사용된 부사어가 시적 상황 제시나 화자의 정서 표현 등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은 화자의 변함없는 신념이나 의지적 태도를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 수 없는 열정에 휩쓸리며 살던 젊었을 때와 달리 비우고 털어 내는 원숙한 삶에 대한 기쁜 깨달음에 도달한 화자의 내적 변화를 환기한다. '비로소'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과 달리 변화하기 시작하는 상황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부사어이다.

[오답 풀이]

- 겨울이 되어 잎사귀를 모두 떨어뜨린 나무의 모습을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화자가 겨울나무의 모습을 순리에 따르는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겨울 저녁 무렵 가로수들에 매달려 있는 꼬마전구들에 '일제히' 불이 들어온다. 이는 인간의 관점에 따라 자연의 질서를 교란하고 '이상한 광합성'을 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는 겨울나무들의 억압적 상황과 획일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어둠이 박멸 대상 같은 취급을 받는 시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환급'은 '몹시 어수선하고 급박하게'라는 뜻이다. 사람이 만든 도시 문명은 광합성을 중단하고 휴식에 들어 있던 겨울나무들을 교란하므로, 겨울나무가 저녁마다 '환급'을 올리온다는 것은 겨울나무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수선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드러낸다.

[05~08] 염상섭, 「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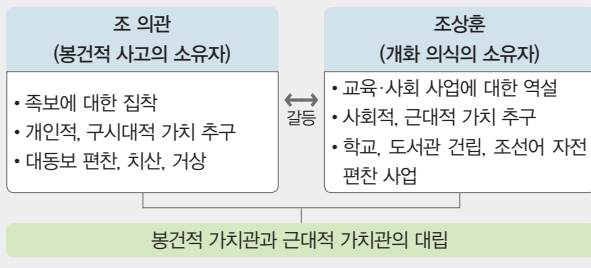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1920년대 서울의 보수적인 중산층 집안을 배경으로 당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보수적이고 유교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구한말 세대 조 의관, 기독교와 신학문의 세례를 받았으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상훈, 다양한 이념적 지향 속에서 갈등하며 중도적 노선을 견지하는 유학생 덕기라는 삼대의 삶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중산층 가문을 통해 본 세대 간 갈등과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

[구성]

발단	일본 유학생 덕기는 방학을 맞아 귀향했다가 친구인 마르크스 주이자 병화 등과 만남.
전개	덕기는 조부 조 의관과 아버지 조상훈, 조부의 새 부인인 수원 집을 비롯한 여러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집안의 복잡한 갈등 상황을 목격함.
위기	조 의관이 병환으로 위독해지고 이를 틈타 수원집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모략을 꾸민.
절정	조 의관이 사망하자 재산 문제를 둘러싼 집안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운동 조직 사건과 관련하여 덕기와 주변 사람들이 체포됨.
결말	덕기는 무혐의로 풀려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짐.

[핵심 한눈에 보기]



05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사용된 소설로, 서술자가 각 인물들, 즉 덕기, 병화, 조 의관, 상훈 등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설명해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한다는 것은 대개 1인칭 시점이라는 의미인데, 이 글은 3인칭인 전지적 작가 시점을 택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③ 장면이 바뀌어도 서술자는 동일하다.
- ④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안에서 전달한다는 것은 1인칭 시점을 택했다는 의미인데, 이 글은 3인칭 시점을 택하고 있다.
- ⑤ 서술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전개에 관련되는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도 전달하고 있다. 일부 인물에 대해서는 그 인물됨에 대한 주관적 평가까지 제시하고 있다.

06 ‘덕기는 병화의 하숙에 한번 찾아가마고 집을 배워만 두고 못 가 보았지만 그들의 생활을 분명히 머리에 그려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병화에게 그 말을 들을 땐 어쩐지 그들이 측근한 생각도 들고 까닭 없는 일종의 감각 비슷한 충동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덕기가 병화의 하숙집 상황에 동정심을 느낀 것은 맞지만 그 집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생긴 감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마지막 부분에서 조 의관은 ‘너희들도 다 들어 두어라.’라고 하면서 재산의 반을 덕기에게 물려줄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 ② 조 의관은 대동보소라는 족보를 엮는 데 삼사천 원을 썼는데, 그것이 족보 박는 데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식구가 끼어드는 것을 반대하는 문종 사람들의 입을 씻는 데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처럼 많은 간접 비용이 들어간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

- ③ 병화는 내일 떠날 덕기가 꽤 많이 여비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한 달치는 해 주어야 떠나보낼’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숙하는 주인집의 딱한 사정을 들려준다. 덕기가 동정을 느끼는 듯하자 병화는 ‘자기의 청구가 반 이상 성공한 것을 속으로 안심’한다. 따라서 병화는 덕기가 받은 여비 중 일부를 얻어서 하숙비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상훈은 ‘조인광 좌중’에서 아버지 조 의관이 찾김에 자신과 경애 사이의 일을 말하자 얼굴이 벌게지고 듣기에 괴란쩍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다.

07 병화에게 하숙하는 주인집 딸을 그룹에 끌어들이는 건 어떡냐고 제안하는 것이라든지 부르주아는 합류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그룹’은 <보기>에서 언급한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이들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룹’에 가입하라는 병화의 권유에 덕기가 ‘나 같은 부르야 문제 밖’이라고 회피하듯 대답하는 것은 맞지만, 덕기가 계층 간 갈등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병화네 주인집의 사정에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그룹’의 구성원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덕기는 <보기>에 제시되어 있듯이, 그들의 생각에 동감하면서도 그들의 운동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아버지인 조 의관이 족보를 묶는 데 큰돈을 들이자 아들 상훈은 이를 ‘지금 시대에 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다른 데에 돈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아들들의 비판에 분노한 조 의관은 상훈이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인 경애를 유언하여 아이까지 낳은 일을 언급하며 아들을 망신 주고 있다. 상훈은 아버지의 ‘가문의 명예욕’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한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애욕이 윤리적 타락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 ③ 여비를 많이 땀겠다는 병화의 말에 덕기는 ‘염감’, 즉 자신의 할아버지인 조 의관이 어렵히 ‘주판질’을 해서 주셨겠느냐고 답한다. 즉 이것저것 따져 계산하여 그다지 넉넉지 않게 주었다는 뜻이다. 이는 손자인 덕기가 할아버지 조 의관이 금전욕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⑤ 마지막 부분에서 분노한 조 의관은 아들 상훈에게 한 푼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라고 따지듯 묻는다. 이는 신학문과 기독교를 접한 상훈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못마땅해서 하는 말이고, 이를 통해 유교적 의례를 중시하는 조 의관의 봉건 의식을 엿볼 수 있다.

08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원래 뜻은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다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여기서는 조 의관이 듣기 싫다며 어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상훈이 더 언성을 높여 반대의 말을 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므로, 나가라는데도 점점 더하고 서 있는 아들에게 꼴불견이라는 뜻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위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로, 중국 진(秦)나라의 조고(趙高)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하여 보고자 황제 호해(胡亥)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또한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기에도 한다.
- ② ‘후생가외(後生可畏)’는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려운다는 말이다.

- ③ '백척간두(百尺竿頭)'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이다.

[09~11] 안민영, 「매화사」 / 한혹구, 「보리」

(가) 안민영, 「매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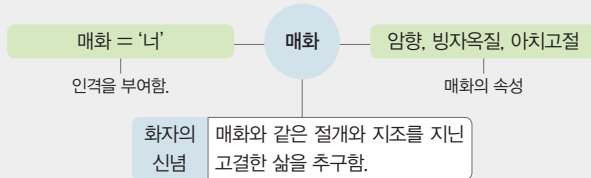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안민영이 스승 박효관의 산방에서 놀다가 스승이 가꾼 매화를 보고 즉흥에서 지었다고 전하는 총 여덟 수의 연시조이다. 연약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의 시련을 이겨 내어 봄을 알리는 매화를 예찬한 시조로, 의인화한 매화를 청자로 삼아 지조와 절개, 아름다운 자태에 대한 경탄의 말을 건네는 형식을 띠고 있다.

[주제] 매화의 자태와 절개에 대한 예찬

[구성]

제1수	매화 그림자가 비치는 방 안에서의 풍류
제2수	눈 속에 피는 매화의 강인한 모습과 그윽한 향기
제3수	매화의 고운 자태와 높은 절개
제4수	약속을 지켜 핀 매화와 더불어 즐기는 흥취
제5수	황혼에 돋는 달과 조화를 이루는 매화
제6수	매화의 강인한 지조와 자연의 섭리
제7수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
제8수	겨울을 이겨 내는 매화 예찬

[핵심 한눈에 보기]



(나) 한혹구, 「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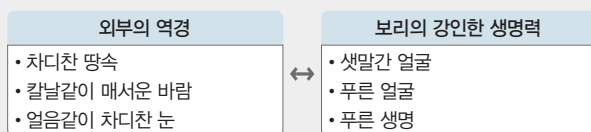
[감상] 이 작품은 보리의 특성을 섬세하게 표현한 시적인 문체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수필이다. 보리를 청자로 설정하여 친근하게 부르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늦은 가을부터 겨울의 차가움을 견뎌내고 환희의 봄날을 맞이하는 보리의 끈질긴 인내와 강인한 생명력을 예찬하고, 아울러 농부의 순박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차디찬 땅속',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 '얼음같이 차디찬 눈'과 같은 외부의 역경을, '셋말간 얼굴', '푸른 얼굴', '푸른 생명' 등으로 표현된 보리의 강한 생명력과 대비시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 예찬

[구성]

1	늦은 가을날 농부가 땅에 심은 보리
2	봄날을 꿈꾸며 겨울을 견뎌내는 보리
3	기다리던 봄이 오자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보리

[핵심 한눈에 보기]



09 (가)에서는 '매화'를 '너'로 지칭하고 있고, (나)에서는 '보리'를 '너'로 지칭하여 두 작품 모두 청자로 삼은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매화의 빼어난 자태와 높은 절개를, (나)는 보리의 강한 생명력과 끈질긴 인내를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두 작품이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두 작품 모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주요 대상(매화, 보리)에 대한 태도는 예찬적이기 때문에 비판적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두 작품 모두에서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에 대한 인식이나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가)의 매화와 (나)의 보리는 둘 다 겨울 추위를 이겨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설의적 표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 ㉞은 매화와 황혼의 달이 서로 잘 어울리는 사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뜻이다. 화자가 지난날 매화의 가치를 평가 절하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어조 또한 자기반성이라기보다 새로 갖게 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가벼운 자탄에 가깝다.

[오답 풀이]

- ① ㉞은 매화 가지가 '어리고 성긴' 모습이라서, 화자는 눈 내리면 매화가 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어지는 중장 내용을 보면,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연약한 매화나무가 두세 송이 꽃을 피워 냈다는 사실에 화자는 감탄하고 있다.
- ② ㉞은 아름다운 풍치와 높은 절개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마도 매화뿐이라는 내용이므로, 다른 꽃들과 대비되는 매화의 절개를 예찬한 것이다.
- ③ ㉞은 맑은 향기가 술잔에 떠 있으니 마시고 취하여 즐기며 놀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매화의 아름다움에 빠져 취흥을 즐기며 풍류를 만끽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④ ㉞은 황혼에 돋는 달과 매화가 서로 무슨 약속이라도 했었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는 방 안에서 자던 매화가 향기를 놓아 달을 맞이할 만큼 매화와 달이 잘 어울리는 '벗'이라는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담고 있다.

11 (나)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 의식을 참고할 때 (나)는 겨울의 차가움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에서 차가운 겨울이 따스한 봄과 대비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강조되는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의 소재는 겨울에서 봄까지의 계절 변화, 그에 따른 농부의 농사일과 보리의 생장 같은 것들이다. 이는 농촌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소재가 아니므로 ㉞에서 말한 일상적 소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보리라는 소재를 다루되 글쓰이는 보리의 여러 속성 가운데서도 특히 강인한 생명력에 주목하여 내용을 전개하였다. 이는 ㉞에서 설명한 글쓰이의 독특한 관점에 해당한다.
- ③ (나)는 겨울을 이겨 내고 아름다운 봄 풍경을 그려 내는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을 예찬한 작품이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현재의 인내가 미래의 환희와 보람을 가져다준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술집과 같은 새파란 머리', '억센 팔뚝을 내뻗치고', '푸른 바다의 물결', '봄의 춤', '푸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 등에서 보리의 모습과 봄 풍경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푸른', '푸르른' 등의 색채어도 많이 사용되었다.

[12~15] 박지원, 「광문자전」

[감상]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이 쓴 한문 소설로, 기존 고전 소설의 재재가인(才子佳人)형 주인공이 아닌 미천한 신분에 추한 외모를 지닌 광문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따뜻한 인간성과 소탈한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욕심이 없고 순수한 광문은 탐욕과 부패에 빠진 조선 후기의 양반들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작가는 이와 같이 인물들을 대비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신의 있고 정직한 삶에 대한 예찬

[구성]

발단	거지 아이들의 우두머리가 된 광문은 누명을 쓰고 동료들에게 쫓겨나 어떤 집에 들어감. 광문의 인품을 알아본 집주인이 광문을 약국의 부자에게 천거함.
전개	약국 점원으로 일하던 광문은 약국 부자에게 도둑으로 의심받지만 그의 무고함이 밝혀짐. 약국 부자는 광문에게 사과하고 그의 인품과 의로움을 널리 알림.
위기, 절정	광문이 성실한 행동으로 위기를 넘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음.
결말	광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랑받음.

[핵심 한눈에 보기]

일화	광문의 성품
병든 아이 대신 밥을 빌려 나감.	따뜻한 인간애를 지님.
누명을 쓰고 패거리에서 쫓겨난 후에도 죽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름.	선량함, 의로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지 않음.	정직함.
담보 없이도 남의 보증을 섬.	신뢰할 만함.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싸움을 말림.	지혜로움.
자신의 외모가 추하다는 이유로 장가 들기를 거절함.	겸손함. 남녀평등 의식을 지님.
집을 소유하려 하지 않음.	욕심이 없고 자유분방함.

↓
광문의 일화를 통해 신의 있고 정직하며 소탈한 새로운 인간상을 부각함.

12 이 글은 주인공인 광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을 삽화식으로 나열하여, 그의 따뜻한 인간성과 정직함, 소탈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일대기적 구성이란 인물의 출생부터 성장, 활동,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서술한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광문의 몇 가지 주요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이 글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아닌, 인간미와 의리를 지닌 인물의 성격을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 ④ 전기적 요소는 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로 고전 소설의 사건 전개에 많이 쓰이나, 이 글에는 쓰이지 않았다.
- 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있을 뿐, 현재와 과거를 엮갈려 구성하지 않았다.

13 [A]에서 광문은 사내가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남녀의 감정이 같을 것이라고 판단

한 광문의 말에서 광문이 남녀평등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병든 아이를 위해 먹을 것을 빌어오고 죽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 주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 ② 이 글에서 광문이 잘못을 저지른 뒤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인물은 약국 부자이다.
- ③ 집을 소유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며 자유분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이 글에서 광문이 신분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고전 소설에서는 대체적으로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에 반해 이 글의 주인공인 광문은 신분이 비천한 거지이나 마음이 착해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인물이다. 작가는 이러한 새로운 인물형을 통해 신분이나 지위를 떠나 성실하고 신의가 있으며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돕는 인정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실리보다 명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대 양반들로, 거지 출신인 광문과 대조되는 인물형이다.
- ② 광문이 부정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글에는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광문이 그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애쓰는 인물로 그려지지도 않았다.
- ④ 광문은 욕심 없이 소탈하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렇지만 당대를 살아가는 인물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으므로 현실과 거리를 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식 더하기

「광문자전」에 나타난 작가의 근대 의식

- 추한 외모의 거지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의 인품을 예찬함으로써 새로운 근대적 인간형을 제시함.
-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의롭고 가식 없이 소탈하게 산다면 모두와 벗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남.
-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러남.

15 광문은 수표교 아래(㉔)에 숨어 있다가 거지 아이들이 버리고 간 죽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한다. 광문은 누명을 쓰고 패거리에서 쫓겨난 상황에서도 죽은 아이의 장례를 치러 주는 선량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인물로, 애초에 잘못된 일이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㉔에서 광문은 병든 아이를 죽였다는 누명을 써 매질을 당하고, 거지 패거리에서 쫓겨나 ㉔에 이르게 되었다.
- ② ㉔의 집주인은 ㉔에서 광문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는 모습을 보며 그의 따뜻한 인간됨을 알아보았다.
- ④ 광문은 그의 인간됨을 알아본 ㉔의 집주인의 소개로 ㉔에서 일하게 되었다.
- ⑤ ㉔에서 약국 부자는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광문을 의심하였지만, 며칠 후 오해가 풀리자 그를 의심한 것을 사죄하였다.

메모